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 학위논문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 한국과 싱가포르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birth in  
Korea and Singapore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Tan Mei Jing, Jo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 한국과 싱가포르 중심으로 -

지도교수 모브랜드 에릭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Tan Mei Jing, Jo

Tan Mei Jing, Jo의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8월

Chair	<u>은기수</u>
Vice Chair	<u>오윤아</u>
Examiner	<u>모브랜드 에릭</u>

# 초록

기존에 있는 한국의 결혼 및 출산율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태도와 이러한 태도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상황을 비교해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을 취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별 비교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를 중점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싱가포르 양국을 집중적으로 비교하고 정부 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 13명 및 싱가포르 청년 13명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유사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학력 향상, 사회 분위기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비율은 싱가포르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의 추가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은 한국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오히려 한국에서 이러한 삶의 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부 요인으로는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가족의 지원 부족, 그리고 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단순히 한국인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요어 :** 결혼율, 출산율, 저출산, 한국, 싱가포르

**학번 :** 2019-25184

# 목차

1. 서론 .....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2. 선행 연구의 검토 .....	3
1.2.1. 한국 .....	4
1.2.2. 싱가포르 .....	7
1.2.3. 이 연구의 공헌 .....	9
2. 이 연구의 중요성 및 문제 제기 .....	10
2.1. 한국의 결혼 통계 .....	10
2.2. 한국의 출산 통계 .....	13
2.3. 싱가포르의 결혼 통계 .....	15
2.4. 싱가포르의 출산 통계 .....	17
2.5. 문제 제기 .....	18
3. 연구 방법 .....	20
3.1. 조사 시간 .....	20
3.2. 윤리적 고려 사항 .....	21
3.3. 조사 대상 .....	21
3.4. 자료 수집 방법의 근거 .....	22
3.5. 자료 수집 절차 .....	23
2. 한국과 싱가포르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	24
1. 자료 분석과 결과 .....	24
1.1.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	25
1.2. 결혼의 지속적인 중요성 .....	31
1.3.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 .....	36
1.4. 자녀의 지속적인 중요성 .....	40
1.5. 남녀 간의 상호 이해 .....	42
1.6. 사랑 및 상대방에 대한 조건 기대치 .....	44
1.7.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	49
1.7.1. 재정적 걱정 .....	50
1.7.2. 경력에 미치는 영향 .....	52
3. 토론 .....	55
1. 높은 결혼 비용 .....	55
1.1. 집 비용 .....	55
1.2. 결혼 비용 .....	60
1.3. 남성에게 가중되는 부담 .....	61
2.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긴 준비 기간 .....	62
2.1.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	62
2.2. 직장 문화의 차이 .....	64
2.3. 교육 년수의 증가 .....	66

3. 사회의 불안정성 .....	7 0
3.1. 치열한 경쟁 사회 분위기 .....	7 0
3.2. 정부 및 현 제도에 대한 불신 .....	7 3
4. 가족의 육아 지원 부족 .....	7 6
5. 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 .....	7 9
4. 결론 .....	8 2
1. 요약 및 연구의 중요성 .....	8 2
2. 한계와 미래 연구 .....	8 6
부록 A.....	8 8
부록 B.....	9 4
부록 C.....	9 9
참고 문헌 .....	1 0 9
Abstract.....	1 1 7

## 표 및 그림 차례

<표 1> 한국 일반 결혼율 .....	1 1
<그림 1> 한국 평균 초혼 연령.....	1 2
<표 2> 한국 시도별 초혼 평균 연령 .....	1 2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1 3
<그림 3>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1 3
<그림 4>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비교.....	1 4
<그림 5>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0p.....	1 4
<그림 6>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2020p .....	1 5
<그림 7>싱가포르 일반 혼인율.....	1 5
<그림 8> 싱가포르 연령별 성별 결혼률.....	1 6
<그림 9> 싱가포르 결혼 연령 중간값 .....	1 6
<그림 10> 싱가포르 총 출산율 .....	1 7
<그림 11> 연령별 출산율.....	1 7
<그림 12> ‘결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에 대한 응답 .....	2 6
<그림 13>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에 대한 응답 .....	3 2
<그림 14>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에 대한 응답... 3 6	
<그림 15> ‘아이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나요?’에 대한 응답 .....	3 7
<그림 16> ‘결혼 후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에 대한 응답.....	4 1

<그림 17> ‘결혼 상대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	4 5
<그림 18> ‘결혼 전에 충분한 연애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에 대한 응답 .....	4 7
<그림 19> ‘결혼하면 경력이 위험해질 것 같나요?’에 대한 응답 .....	5 2
<그림 20> ‘아이를 갖는 것이 본인의 경력에 타격이 될 것 같나요?’에 대한 응답 .....	5 3
<그림 21> 한국의 연도별 실업률 .....	6 3
<그림 22> 싱가포르의 실업률 .....	6 4
<그림 23> 한국인 참가자의 직업 .....	6 9
<그림 24> 싱가포르인 참가자의 직업 .....	6 9
<그림 25> ‘육아 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인가요? 요청한다면 누구에게?’에 대한 응답 .....	7 7

## 예 차례

<예 1> KF1의 인터뷰 .....	2 6
<예 2> SF4의 인터뷰 .....	2 7
<예 3> SM2의 인터뷰 .....	2 7
<예 4> KM6의 인터뷰 .....	2 7
<예 5> SM5의 인터뷰 .....	2 7
<예 6> SM3의 인터뷰 .....	3 0
<예 7> KM5의 인터뷰 .....	3 1
<예 8> SF1의 인터뷰 .....	3 2
<예 9> KF5의 인터뷰 .....	3 3
<예 10> KM1의 인터뷰 .....	3 3
<예 11> SF5의 인터뷰 .....	3 3
<예 12> KF6의 인터뷰 .....	3 4
<예 13> SM6의 인터뷰 .....	3 4
<예 14> KF2의 인터뷰 .....	3 5
<예 15> SM1의 인터뷰 .....	3 5
<예 16> KF4의 인터뷰 .....	3 7
<예 17> SM1의 인터뷰 .....	3 8
<예 18> KM2의 인터뷰 .....	3 8
<예 19> KM5의 인터뷰 .....	3 8
<예 20> SF6의 인터뷰 .....	3 8
<예 21> KF4의 인터뷰 .....	3 9

<예 22> SF2의 인터뷰 .....	4 1
<예 23> KM6의 인터뷰 .....	4 1
<예 24> SM4의 인터뷰 .....	4 3
<예 25> KF7의 인터뷰 .....	4 3
<예 26> SM3의 인터뷰 .....	4 5
<예 27> KF3의 인터뷰 .....	4 5
<예 28> KM1의 인터뷰 .....	4 6
<예 29> KM5의 인터뷰 .....	4 7
<예 30> SF4의 인터뷰 .....	4 8
<예 31> KF2의 인터뷰 .....	4 8
<예 32> SF7의 인터뷰 .....	5 0
<예 33> KM3의 인터뷰 .....	5 0
<예 34> KF4의 인터뷰 .....	5 1
<예 35> KF2의 인터뷰 .....	5 3
<예 36> SF5의 인터뷰 .....	5 4
<예 37> KM4의 인터뷰 .....	5 7
<예 38> KF1의 인터뷰 .....	5 7
<예 39> SM2의 인터뷰 .....	5 8
<예 40> SF4의 인터뷰 .....	5 9
<예 41> KM1의 인터뷰 .....	5 9
<예 42> KF5의 인터뷰 .....	6 0
<예 43> KF3의 인터뷰 .....	6 1
<예 44> KM6의 인터뷰 .....	6 5
<예 45> SM6의 인터뷰 .....	6 5
<예 46> KF1의 인터뷰 .....	6 8
<예 47> KF7의 인터뷰 .....	7 1
<예 48> KF2의 인터뷰 .....	7 2
<예 49> KF4의 인터뷰 .....	7 4
<예 50> KM5의 인터뷰 .....	7 4
<예 51> KM3의 인터뷰 .....	7 5
<예 52> KM1의 인터뷰 .....	7 8
<예 53> SF6의 인터뷰 .....	7 9
<예 54> KF1의 인터뷰 .....	8 0
<예 55> KF5의 인터뷰 .....	8 1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지역의 다른 부유한 국가들은 결혼과 관련된 추세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인구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 수준과 개인 및 가족 열망에 대한 개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와의 집중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의 결혼과 출산 지연에 기여하는 외부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세한 비교를 통해 단순하고 기계적인 비교보다는 한국의 현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간주되며 결혼을 통해 자신의 가족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결혼은 독립된 두 개인들의 결합을 제도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Duncan(2018)에 따르면, 결혼은 법적, 사회적, 정서적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결혼이 항상 선택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혼의 정의는 신앙, 언어, 심지어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은 한 커플이 사랑에 빠졌고 관계에 헌신하고 결혼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헌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혼의 차원이 시간과 함께 계속 발전해 왔지만, 가족 및 결혼 제도는 보편성을 유지해왔고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라는 보편적 인식 또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회학자 Max Webber는 결혼을 사회적으로 성관계가 허용되고 합법화되며 자녀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했다(Özyigit, 2017).

결혼의 정의가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는 동안 급격히 변화해 온 것은 분명하다. 과거에 결혼의 주된 목표는 가족 간의 동맹과 경제적인 연합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전통 사회에서 대부분의 결혼은 가족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보통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계를 위해 결혼을 했다(Allendorf & Pandian, 2006). 비록 인도와 같은 특정 사회에서는 중매 결혼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결혼을 결심한다. 중매 결혼의 감소는 계급(caste)의 중요성, 예비 배우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지위의 감소를 의미한다. 세계화를 통해 성 평등, 자유, 개인 자유와 같은 서구적 가치관들이 오늘날 결혼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젊은 세대는 점점 더 개방적으로 되고 있으며, 이런 개방적인 태도는 전 세계의 이혼율 증가와 동거의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피임, 낙태 등 여러 산아 제한 방법들이 보편화되면서 혼전 성관계가 갖는 임신에 대한 불안감의 요소가 줄어들었다(Stevenson & Wolfers, 2007). 게다가 남성과 여성 모두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빨리 꾸리는 것보다 자신의 직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삶의 우선 순위를 전환했다. 이처럼 개인주의의 증가는 개인의 인생 목표에서 결혼과 출산이 갖는 중요도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쌓았던 업적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이혼율 급증 등 사회적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준비상태에 대한 인식은 미래 결혼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미래의 결혼 및 출산 추세 예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정부가 채택한 조치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다.

- 첫째, 양국의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준비 기준을 파악하고 비교한다.
- 둘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 유사점 및 차이점을 찾고, 그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 셋째, 한국의 현재 가족 정책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개개인의 학력 상승에 따른 직업적 열망의 차이,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이 유사한 변화의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연령이 증가하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빠르며, 그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욕구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같은 외부적인 경제적, 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단순히 한국인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결혼과 출산 비용에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 1.2. 선행 연구의 검토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루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다. 학자들은 인구 구조, 경제, 사회의 변화가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Jones, 2012).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는 교육 기회의 확대이다. 여성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었고 경제 자립도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에 집중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났다. 고학력 미혼 여성은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으로 간주하는 몇몇 사례가 있지만, To(2013)는 이에 반박하였다. 그는 중국의 고학력 미혼 여성을 두고 “남겨진 여성들”(leftover women)이라는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성들이 미혼인 이유는 결혼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늦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결혼이 늦어 지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향이 단지 학력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만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우해봉, 2009).

다음으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는 수년에 걸쳐 진화해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으로부터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연애의 전통적인 절차는 연애에서 약혼, 그리고 최종 목표인 결혼으로 이어진다(Manning, Longmore & Giordano, 2007).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과정은 요즘 젊은 세대의 남녀는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은 연애에서 동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최종 목표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동거가 결혼의 대안이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Lichter & Qian, 2008). Fine-Davis(2011)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인과 함께 살아보는 경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혼전 동거 생활은 이제 결혼 전에 상대방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더 건강하고 튼튼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동거 생활은 사회경제적 생활 수준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흔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Smock, 2000).

### 1.2.1. 한국

한국에서 연구자들은 1990년대부터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왔다. 이 문제를 맨 처음으로 다뤘던 개척자들은 먼저 결혼과 출산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김성해와 김초강(1990)은 기혼 여성에 대한 국내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혼 변수를 식별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식구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 것, 작은 가족 규모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결혼 연령이 늦어질수록 출산 간격이 줄어들었다(은기수, 2001).

반면 Ochiai(2011), Chang(2010) 등의 학자들에 의하면 압축적 근대성이 한국 가정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Ochiai(2011)는 압축적 근대성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성비로 태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남성은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고 제사를 지내야 하며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더욱 선호되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 전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선택적 낙태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남녀 성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여성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여성이 남성의 힘에 종속된다고 여겨지면서 남녀 불평등이 가중됐다. Chang(2010)은 이와 함께 부모의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위험 역행 개인주의(risk-adversive individualism)’ 개념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여성이 출산을 지연하거나 아예 출산을 원치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한국에 중요한 분야가 되면서 여성가족부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통계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국가 설문 조사를 연구에 활용했으며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탁현우(2020)는 한국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의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2015년 전국 출산율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월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결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월 소득 자체보다 취업 상태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미혼 남성의 응답 결과도 비슷했지만, 남성 참가자들에게 장래 결혼 지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기업에 근무하거나 공공 부문에 있는 남성들의 경우 미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 보다 나이가 많은 참가자들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결혼 연령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원하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 했거나 오랜 취업 준비로 적절한 결혼 시기를 놓쳤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 마련의 중요성과 이러한 정책이 일과 결혼, 육아 측면에서 미혼 남녀 모두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연구는 한국인 전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 연구는 젊은 성인과 대학생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박선향(2019)은 남녀 평등이 결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했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학업 연도, 출생 순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혼과 성 평등 의식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정서적 안정은 여학생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리고 남녀 평등 의식과 결혼에 대한 인식의 관계에서 남녀 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저자는 또한 정부가 성 평등 교육과 대학생의 교육 경험을 설계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박미라와 제남주(2019)는 정부가 긍정적인 결혼과 출산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국가 정책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경향을 확인했다. 대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구현하여 국민들의 현재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 문헌들은 결혼과 출산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 첫 걸음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국 정부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방안을 구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자들은 주로 이 사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설문 조사를 사용했는데, 이 자료는 한국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 및 출산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결혼 지연과 출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인과의 심층 면접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젊은 세대를 위한 결혼 및 출산 정책들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1.2.2.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간단한 배경을 다룰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이며 국민 대다수가 영어를 사용한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는 568만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74.3%, 말레이인 13.5%, 인도인 9.0%, 그 외 인종 3.2%로 구성되어 있다(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0). 영국 식민 통치하에 싱가포르는 항구 도시로 성장했다. 1965년 독립 이후 싱가포르는 2019년에 1인당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이 약 65,233 달러로 근대적이고 서구화된 도시 국가로 발전하였다(World Bank, 2020).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국무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산하 국가인구인재부(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에서 전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설문 조사 자료를 많이 사용해왔는데, 1981년에 Sam과 Wong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육 수준과 소득에 따라 이상적인 결혼 연령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섯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결혼 이유로 '사랑'을 꼽았다. 소득과 교육적 차이는 배우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인종적, 종교적 차이가 결혼의 근본적인 장벽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결혼율과 출산율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자들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Straughan(2012)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연구하여 급속한 경제 발전과 강력한 직업 윤리와 같은 요소가 가족의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정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여성들을 노동 시장에 참여시켰다. 그 결과 여성들은 가정을 꾸리는 대신 점점 더 그들의 직업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확대시켰고 어느 정도 문제를 완화했으나, 현지인과 외국인 사이의 사회적 긴장이 증가하여 갈등을 유발하였다. 그녀는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 대신 일과 삶의 균형을 구축하고 양육 요구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에서도 Straughan의 주장에 공감했다. Hashmi와 Mok(2013)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저출산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은 모두 경제적 요인에 있다. 결혼한 부부는 출산을 결정할 때 재정 상태, 교육, 건강 관리 등의 양육 비용을 걱정하게 된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의 결혼 시기 사이에는 역관계가 있다. 여성이 늦게 결혼하면 출산 시기가 늦어지며, 이는 성공적인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Bumpass, Rindfuss와 Jamosik(1978)은 또한 늦게 결혼하는 여성은 결혼과 출산 전에 더 많은 높은 학력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출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을 가능성이 더 높다. Jones, Zhang와 Chia(2012)의 연구에서는 중국 출신의 싱가포르인과의 인터뷰에서 긴 근무 시간이 활발한 사회 생활과 효율적인 연애를 방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의 독신 생활은 결혼 후 잃게 될 자유시간을 경력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남성들은 결혼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분을 확보했을 때에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소득 전망이 좋지 않은 남성과 결혼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Strijbosch(2015)와 같은 학자들은 젊고 독신이며 교육을 잘 받은 여성들이 싱가포르에서 가족 이상(family ideals)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의 높은 독신율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여전히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연애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부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독신자들이 35세가 되기 전까지 스스로 집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인구를 관리하는 가장 두드러진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가 개입이 너무 강력하여 이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저자는 그러한 개입을 통해 국가가 제도적 징계기관으로서 국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싱가포르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Jones(2012)는 싱가포르 정부가 아이를 위해 아동 수당(Baby Bonus)과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긴 하지만, 높은 아이 양육 비용을 완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두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싱가포르의 사회 분야 연구에 가치를 더하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결혼 연령 증가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또한 이 연구는 싱가포르에서 그 수가 다소 제한되어 있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기존 문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2.3. 이 연구의 공헌

한국에서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기여한 여러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로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비교 연구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Raymo et. al(2015)은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결혼율 및 출산율 추세를 설명하면서 서구 사회의 경우로 설명하는 것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과 가족 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이들 국가의 결혼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의 일반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결혼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편, Matsuda(2019)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프랑스, 싱가포르,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에서 청년의 취업과 결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는 비정규직 남성이나 저소득층 남성이 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에서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각국의 고용 여건이 정부에 미치는 중요성을 정확히 지적하는 데 유용했지만 한국만의 고유한 외부 요인을 제시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한국의 결혼과 출산 문제를 타 국가와 비교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는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과 비 동아시아 국가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그 수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두 국가를 집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기존 문헌의 격차를 메우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비교 연구가 한국 정부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여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대해 보다 나은 관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 이 연구의 중요성 및 문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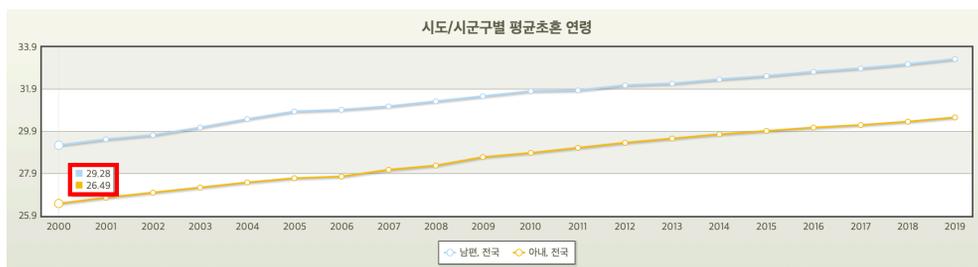
### 2.1. 한국의 결혼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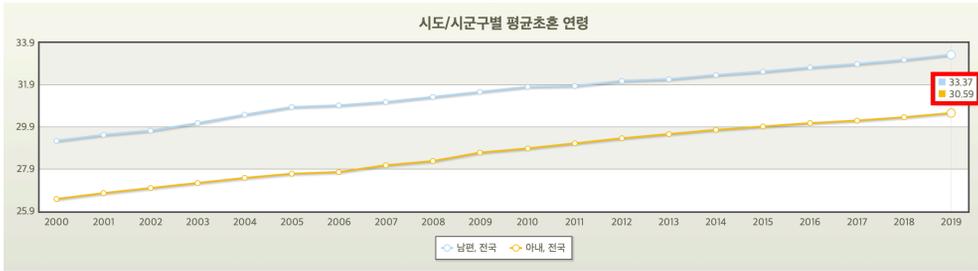
한국에서는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고등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직업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1>에 따르면 총 혼인 건수는 1990년 399,312건에서 2019년 239,159건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서울의 총 혼인 건수는 1990년 103,843건에서 48,261건으로 거의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다른 두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총 결혼 건수가 거의 50% 감소했다(통계청, 2019).

행정구역별(1)	1990	행정구역별(1)	2019
	혼인건수(건)		혼인건수(건)
전국	399,312	전국	239,159
서울특별시	103,843	서울특별시	48,261
부산광역시	32,345	부산광역시	13,780
대구광역시	18,250	대구광역시	9,880
인천광역시	18,239	인천광역시	13,401
광주광역시	8,921	광주광역시	6,297
대전광역시	8,517	대전광역시	6,602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5,442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2,039
경기도	60,681	경기도	62,356
강원도	11,762	강원도	6,762
충청북도	12,114	충청북도	7,239
충청남도	15,814	충청남도	9,826
전라북도	17,197	전라북도	7,005
전라남도	23,091	전라남도	7,413
경상북도	26,887	경상북도	10,637
경상남도	34,752	경상남도	13,613
제주특별자치도	3,955	제주특별자치도	3,358

<표 1> 한국 일반 결혼율

초혼 평균 연령은 한국에서 남녀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7.79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4.78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에는 남녀 평균 연령이 각각 5.58세와 5.81세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3.37세였고,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59세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한국 평균 초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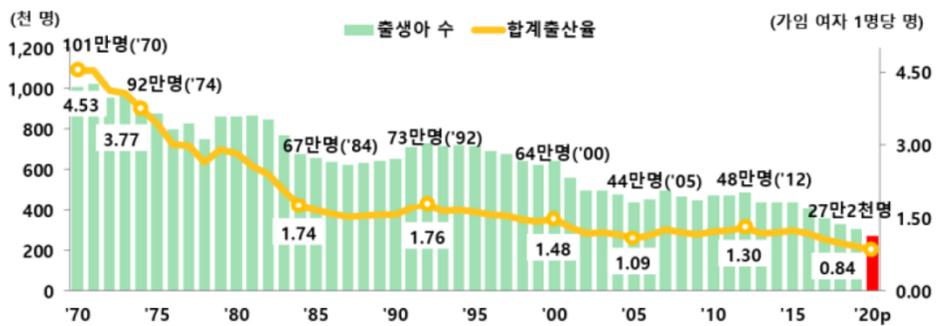
아래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서울에서 31.55세로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면 평균 초혼 연령이 서울에서 33.72세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	2019	
	남편	아내
전국	33.37	30.59
서울특별시	33.72	31.55
부산광역시	33.54	31.04
대구광역시	33.36	30.62
인천광역시	33.25	30.59
광주광역시	33.48	30.65
대전광역시	32.90	30.45
울산광역시	32.78	30.25
세종특별자치시	33.09	30.80
경기도	33.35	30.74
강원도	33.13	30.34
충청북도	32.72	29.98
충청남도	33.05	29.91
전라북도	33.67	30.34
전라남도	33.42	30.07
경상북도	33.30	30.41
경상남도	33.20	30.47
제주특별자치도	34.04	30.99
국위	32.88	27.15

<표 2> 한국 시도별 초혼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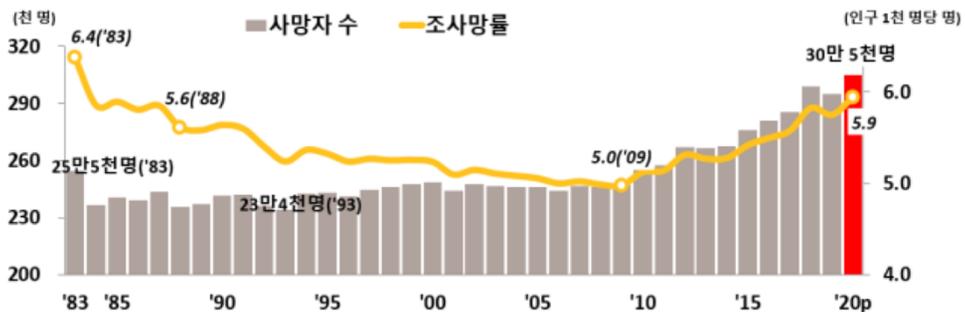
## 2.2. 한국의 출산 통계

출산율에 관해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2020년 0.8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또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 기록이기도 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0.98에 도달하면서 처음으로 1.0아래로 떨어졌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때문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필연적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성서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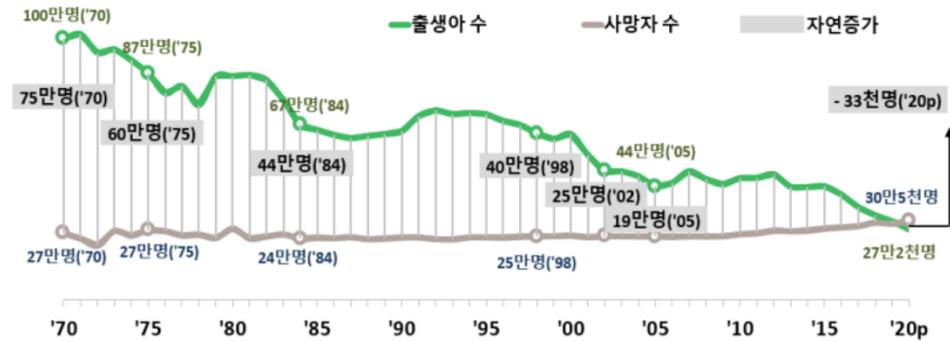


<그림 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또한,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에서처럼 한국의 2020년 총 출생자 수는 27만 2천명, 총 사망자 수 30만 5천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에 비해 3만 3천명이나 앞지르게 되었는데, 한국 역사상 자연 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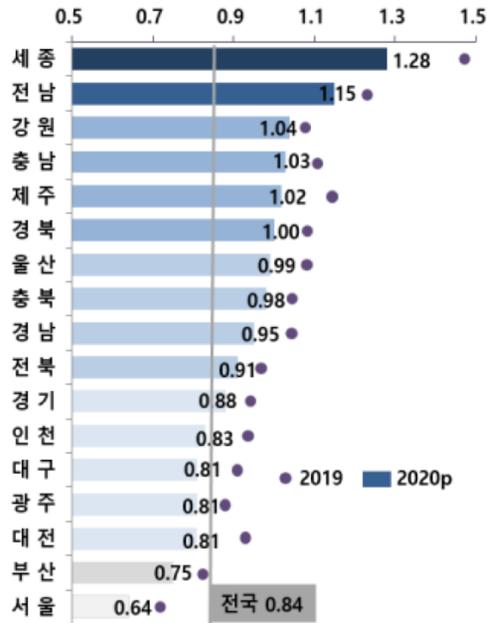


<그림 3>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그림 4>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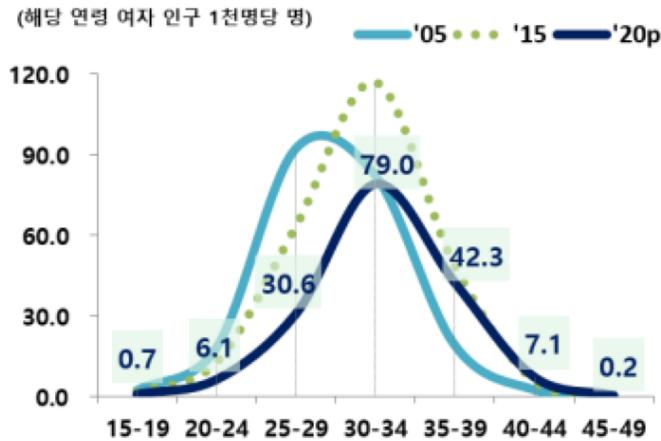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의 총 출산율은 한국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낮다. 실제 서울의 2020년 출산율은 0.64로 전국 평균인 0.84보다 낮다. 마찬가지로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통계청, 2020).



<그림 5> 시도별 합계출산율, 2020p

<그림 6>에서 여성들의 첫 출산은 30-34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그래프를 통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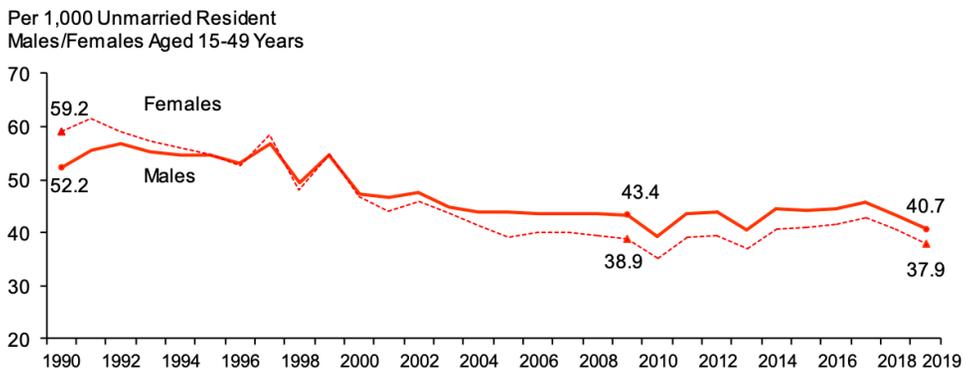
연령대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6> 모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20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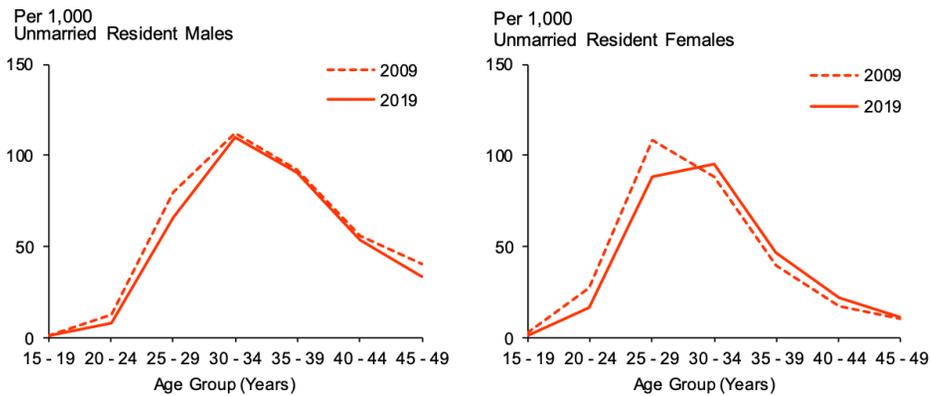
### 2.3. 싱가포르의 결혼 통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결혼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졸업 이후 결혼보다는 경력을 우선시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반 혼인율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남성의 경우 15세~49세까지 미혼 남성 천 명당 일반 혼인율은 1990년 52.2에서 2019년 40.7으로 감소했고(싱가포르 통계부, 2019), 여성의 경우 1990년 15세~49세까지 미혼 여성은 천 명당 59.2에서 2019년 37.9으로 감소했다(<그림 7> 참조).



<그림 7>싱가포르 일반 혼인율

아래 <그림 8>에서 2019년에는 30세~34세 남녀가 가장 높은 결혼율을 보였다. 남성의 최고 결혼 연령대는 2009년과 2019년에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최고 결혼 연령대에서는 25세~29세에서 30세~34세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25세~29세 연령대에서 결혼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림 8> 싱가포르 연령별 성별 결혼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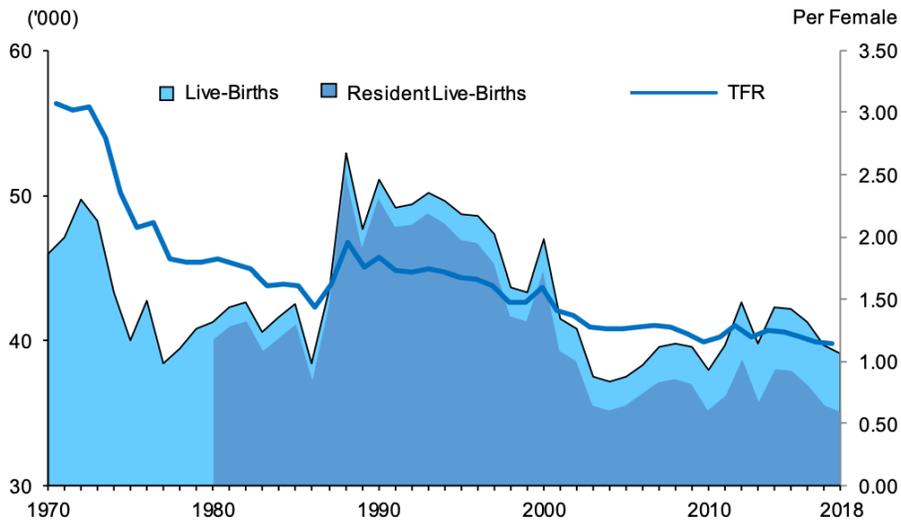
<그림 9>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연령 중간값(median age at marriage)은 1990년과 2019년 사이에 각각 28세에서 30.4세로, 25.3세에서 28.8세로 증가했다.



<그림 9> 싱가포르 결혼 연령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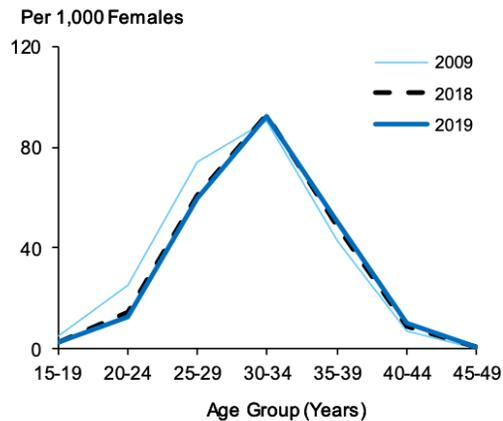
## 2.4. 싱가포르의 출산 통계

싱가포르의 총 출산율은 1970년에 3.0 이상을 기록한 이후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여 왔고, 2017년에는 1.16을 기록했다(<그림 10> 참조). 이는 여성의 가임 기간 동안 가질 평균 자녀 수가 1.16명임을 의미한다. 2017년 총 출산율은 2010년 1.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그림 10> 싱가포르 총 출산율

싱가포르 또한 한국에서처럼 출산율이 30세~34세 여성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그림 11> 연령별 출산율

## 2.5. 문제 제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여성 1인당 0.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이기도 하다. 반면 노인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7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사망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신생아 수가 부족해 일

부 마을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이러한 급격한 인구 변화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후 한국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은 노동력 및 자본의 감소로 인해 뒤처지고 있다. 결혼 추세의 변화가 저출산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만혼이 많아지고 있고, 출산을 꺼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남에 따라 신생아의 수가 감소하는 데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기존 연구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그 이유를 찾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김청석(2006)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전국적 연구를 통해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의 결혼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계숙, 김민정과 서진솔(2019)과 같은 다른 학자들은 성공적인 결혼에 대한 태도가 미혼 청년의 독신 성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젊은 부부의 결혼과 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결혼 연령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른 관점, 즉 비교 분석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 구조를 다른

국가의 제도와 대조하여 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그 국가의 제도, 문화 및 국민들의 사고 방식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비판적 비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Esser & Vliegthart, 2016). 그동안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등 양국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외에 국가와는 비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연구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문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국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두 국가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과 싱가포르는 독립한 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겪었고 1945년 민주 국가로의 독립을 이뤘다. 이와 비슷하게도 싱가포르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와 말레이시아와의 합병을 거쳐 1965년에야 독립을 이뤄냈다. 둘째, 양국은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인적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위해 국제무역의 의존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수도권 서울과 싱가포르는 고령화, 저출산 등 비슷한 사회 문제를 안고 있는 인구 밀집 도시다. 넷째, 양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한국인과 싱가포르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두 국가의 면적 규모가 차이 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 지역별 특성이 각양각색이므로 이 연구는 주로 한국의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의 제한된 국가간 비교 연구 격차를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국의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준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세대는 양국 모두 결혼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준비 여부는 결혼 연령 증가 및 저출산과 같은 현재의 문제와 관련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영향 외에도 개인의 생활 방식 선택과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두 나라에서 시한 폭탄과 같은 긴급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

상황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비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과 경험은 한국의 만혼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결혼과 출산율 비교연구의 한정된 수의 연구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인의 가족 계획 선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한국과 싱가포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려 사항을 비교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국의 인구 통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학 및 가족 연구를 포함한 분야의 개념을 도출한다.

1. 한국과 싱가포르의 청년들은 결혼에 출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식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 a. 이러한 유사점 및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외에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있는가?
3. 현재의 정부 정책이 이러한 가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가?
  - a. 이 정책들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그들의 가족 선택을 돕는 데에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 3. 연구 방법

#### 3.1. 조사 시간

인터뷰는 3월 한 달 사이 총 14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한국인과 싱가포르인 인터뷰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 3.2. 윤리적 고려 사항

인터뷰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로부터 인터뷰의 목적 및 오디오 녹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동의서에 서명 동의를 받았으며(부록 A), 참가자들에게 인터뷰 중 답하기가 불편한 질문은 건너 뛰어도 된다는 내용을 인지시켰다. 그리고 참가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참가자가 승인한 가명과 번호를 사용하여 연구에서 이들을 식별했다.

### 3.3. 조사 대상

본 연구에는 만 19세부터 33세까지의 총 26명의 참가자(한국인 13명, 싱가포르인 13명)가 초청되었고, 참여자들의 성별은 양국 모두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성비가 동일했다.

한국인 참가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 19세~35세
- 미혼

싱가포르인 참가자의 경우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인
- 19세~35세
- 미혼

참가자는 지인 섭외를 통해 모집했으며 참가자는 연구자와 이미 친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친근감 및 우호적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논문 전체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 남성 참가자를 KM1, KM2 등으로 지칭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KF1, KF2 등은 한국 여성 참가자, SM1, SM2 등은 싱가포르 남성 참가자, SF1, SF2 등은 싱가포르 여성 참가자로 지칭하였다. 한국 남성 참가자의 연령대는 22세~31세였고, 한국 여성 참가자의 연령대는 21세~33세였다. 반면 싱가포르 남성 참가자의 연령과 여성 참가자의 연령은 각각 21세~31세, 19세~32세였다. 그리고 싱가포르인 참가자 중에서 11명(남성 6명, 여성 5명)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이었고, 1명은 말레이계 싱가포르인(여성), 1명은 인도계 싱가포르인(여성)이었다. 참가자의 추가 세부 사항은 부록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질문들은 특정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성의 영향이 결과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이 연구에서 싱가포르인의 견해가 대다수의 중국인의 견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전체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 수정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 3.4. 자료 수집 방법의 근거

이 연구는 양국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이다.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특정 상황에 있는 참가자들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해 현상을 밝히고 식별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현상학은 개인의 세상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다(Van Manen, 2016).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터뷰, 토론 및 참가자 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 정보를 수집한 다음 참가자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olkinghorne, 1989).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 방식은 특정 태도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현상학적 방법은 또한 자신의 관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Dahlberg, 2006).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 추가적인 해석을 덧붙이면, 그것은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이론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Lester, 1999). 그러므로, 참가자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 3.5. 자료 수집 절차

이 연구에서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질적 인터뷰는 다양한 문제와 관심사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 태도 및 관점을 조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된다. 인터뷰 질문은 참가자의 견해, 그러한 태도의 이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 더 많이 알아 내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대면 인터뷰가 이상적이지만 현재 팬데믹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는 실시간 회의가 가능한 줌(Zoom)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선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연구자의 질문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왜 그렇게 답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참가자 당 전체 인터뷰는 약 1.5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한국인 참가자와의 인터뷰는 한국어로, 싱가포르인 참가자와의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했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가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언어로 말할 때는 안정감을 느끼고 경계를 낮출 수 있지만, 번역가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고 참가자와 연구자 모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Smith, Chen & Liu, 2008). 따라서 연구자는 참가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쉬웠고 본 연구를 위해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집에서 홀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향후 자료 참조를 위해 인터뷰는 참가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1)결혼, (2)출산, (3)정부 정책 세 범주에 대한 참가자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 (1)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2) 자녀를 갖는 것이 당신을 사람으로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 (3) 아동 수당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언어로 번역된 전체 인터뷰 질문은 부록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의 답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연구원은 질문을 바꾸거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 참가자에게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인터뷰를 마치면 연령, 가족, 직업 및 종교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참가자의 배경을 자세히 파악하였다(부록 B). 이 정보는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참조로 사용된다.

## 2. 한국과 싱가포르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의식 비교 분석

### 1. 자료 분석과 결과

인터뷰 녹음 자료는 면밀히 분석되었으며, 이 절에서 인터뷰 자료의 많은 부분을 재현했다. 먼저 양국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서 유사한 다섯 가지 주제를 식별했다. 첫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 둘째, 결혼과 출산의 지속적인 중요성, 셋째, 남녀 간의 상호 이해 및 배려, 넷째, 사랑 및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다섯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이러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결혼 연령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국의 결혼 연령 증가 속도 사이에 격차를 야기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참가자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한국이 싱가포르에 비해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뽑았다. 첫째, 높은 결혼 비용, 둘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긴 준비 기간, 셋째, 사회적 불안정성, 넷째, 가족의 육아 지원 부족, 다섯째, 미디어의 역할이다. 한국과 싱가포르 참가자들의 답변은 그 내용을 각각 한국어과 영어로 전사하여 기록했다.

### 1.1.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과거에 결혼은 아시아 국가에서 필수적인 삶의 단계이자 주요 사회 제도로 간주되었다(Jones & Yeung, 2014). 사회학자들은 결혼 제도와 가족 제도 간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정의하는데, 결혼은 가족을 만드는 수단이고 가족은 사회가 구축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정 내에서 결혼식만큼 큰 행사는 없다(Gunjan,2019).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2014년 설문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국인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참가했던 26명의 참가자들도 설문 조사와 비슷한 양상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26명 중 19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참가자들 중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아니오’로 답한 비율의 양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림 12>참조). 참가자들 중 70% 이상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고, 결혼의 필요성을 주장한 참가자들도 적절한 상대방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커리어를 쌓거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예 1, 2, 3, 4). 결혼은



연구자 아..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KF1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한번의 인생인데 널 위해서 살아라.

<예 2> SF4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there is a need for one to get married?  
SF4 No. Some people just want different things in life. They have different things they want to achieve like career. For example, someone is a PhD researcher and is dedicating their entire life to saving the earth, global warming. They then won't have time to really focus on marriage. Same for women.

<예 3> SM2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there is a need for one to get married?  
SM2 No. If there is no suitable partner, then there is no need to get married. If not, there is going to be divorce. There are always other things in life that I can focus on. It is not just about marriage.

<예 4> KM6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KM6 아니요. 일단,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하지.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결혼 없이 그냥 둘이 있고 싶다 해도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연애만 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냥 동거만 하는 사람. 자신이 행복하면 되지 뭐.

<예 5> SM5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there is a need for one to get married?

*No. I think whether you are married or not, it does not affect your quality of life. What is important is that you are happy. Marriage is just a process, a ceremony and a legal binding. Besides that, I don't see any other use of it.*

<예 1>은 오늘날 한국인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가족의 기대에 큰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한국 청년들은 이렇듯 과거에 비해 결혼을 중용하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난 양상을 보인다. 이는 혼전 동거 및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방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콘돔, 루프 시술, 피임약 복용과 같은 피임법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한 커플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 결혼의 시급성을 줄여 준다. Juszczuk-Frelkiewicz(2017)가 한국의국어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성관계에 대해 점점 더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개입이나 생식 목적없이 성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은 실제로 결혼에서 분리되어 왔다. 그것은 단순히 즐거움과 개인적인 만족감을 주는 행위이며 이것은 비공식적인 관계와 동거 생활의 수용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최근 연구에서 12세~17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성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용호&이규영, 2020). 이는 결혼과 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미래 세대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예 1>은 결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어떻게 전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KF1의 어머니는 육아가 너무 힘들고 KF1이 최대한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결혼하지 말라고 딸에게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년층과 부모님 세대 간의 연관성은 Lee(2007)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입증되었는데, 저자는 부모와 자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조사했고 그 결과 강력한 세대 간 연관성을 발견했다. 부모가 결혼, 동거, 이혼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었던 청소년의 경우, 삶에서 결혼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 소통 빈도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세대 간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은 자녀에게 결혼, 이혼 및 동거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관찰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이윤설은 한국에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세대별로 전달하는 데 부모와 청소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예 1>과 <예 2>는 최근 청년 여성에게 결혼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KF1과 SF4는 모든 여성이 주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여성들은 이제 삶에서 가사와 육아 말고 다른 것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과거 여성은 자녀 돌보기 및 가사일과 같은 특정 성별 역할을 수행해야했다. 이는 주로 남성이 체력이 더 좋거나 더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버는 책임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의 여성들은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합류하고 있다. 여성 교육의 급속한 확대는 여성의 취업 기회를 증가시켜 남성에게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더욱이 여성은 결혼 결정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정보에 입각한 관계 선택을 할 권한을 얻게 되었다(Giddens, 1992). 그 결과 여성은 이제 사회에서 아내, 어머니, 주부의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넘어선 새로운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Quah 1988). 한국 여성과 싱가포르 여성 모두 이제 더 많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정부, 심지어 남성으로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과 권한이 있다. 교육 성취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랜 기간 공부한 여성들은 자신의 경력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출산 과정을 고려하는 것과 직결되고, 이는 경력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고 싶어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 Retherford, Ogawa, Matsukura의 논문(2004)에서 일본 여성의 학력 증가는 평균 결혼 연령 상승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한 여성 비율의 증가에 기여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교육 확대와 여성 노동력 참여가 청년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했던 예들은 양국의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점차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애의 전통적인 절차는 연애에서 약혼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 결혼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Manning, Longmore & Giordano, 2007). 그러나 이러한 전형적인 과정은 더 이상 젊은 남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은 연애 단계에 머무르고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애에서 동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오늘날 결혼 생활을 대체할 매우 인기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Lichter & Qian, 2008). Davis-Fine (2011)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 상대와 함께 살아 보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혼전 동거는 이제 결혼 전에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이상적인 선택으로 간주되어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게 돕는 유용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했으며 평생 배우자에 헌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일상 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예 6, 7). 게다가 사회 경제적 배경이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흔히 동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mock, 2000).

<예 6> SM3의 인터뷰

연구자	<i>What are your thoughts on cohabitation before marriage?</i>
SM3	<i>It is highly encouraged. Sometimes you may be able to endure certain quirks of your partner, but you may not be able to do so every single day. Like if you are tired from work in the past, you just go back to your room to take some time off by yourself. But when you are married, you go back home to your partner, right? During arguments, you can just take a day off when you are dating but when you are living together, that is quite difficult., <b>When you cohabit before marriage, you get to know stuff like this and how to handle. When you stay together, it is to get used to certain situations</b></i>

*and how to handle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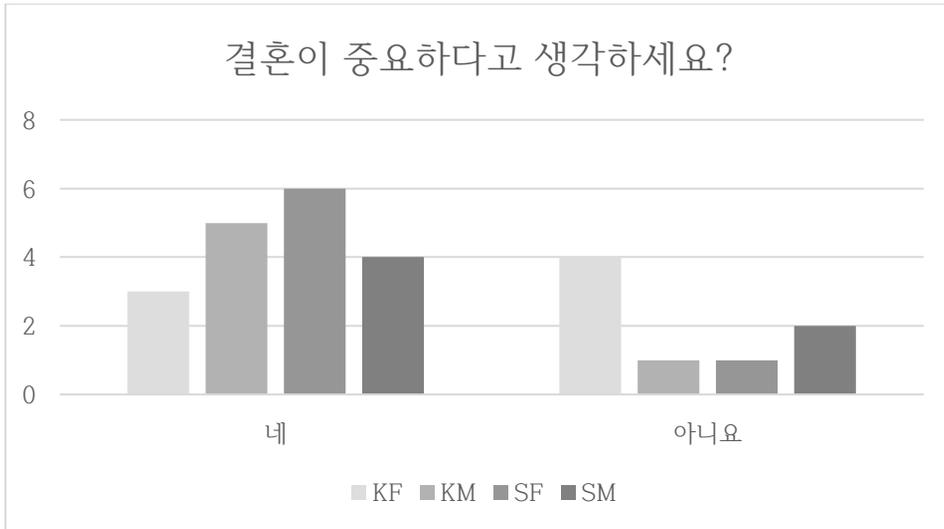
<예 7> KM5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 전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KM5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많아야지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같이 하는 경험도 많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데이트랑 동거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 데이트는 좀 꾸미는 느낌. 동거는 24시간이니까. 만약에 제 아이들이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난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예 6>과 <예 7>에서 참가자 모두 상대방의 포장되지 않은 일상 습관과 갈등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M5는 훗날 자신의 자녀들에게 결혼 전 동거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사회로 여겨지는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동거는 금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흥미로웠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갖는 결혼 이외의 대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재강조한다.

## 1.2. 결혼의 지속적인 중요성

양국참가자들은 결혼할 필요가 적다고 느꼈지만 결혼의 중요성은 여전히 분명하다. 타인의 비혼 인식은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참가자들은 결혼이 바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헌신적인 연애관계를 믿는 것처럼 적합한 상대가 있으면 결혼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참가자들에게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참가자 (3 한국 여성, 5 한국 남성, 6 싱가포르 여성, 4 싱가포르 남성)는 ‘네’(그림 15)라고 답했다. 기독교인 참가자들은 성경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설명했고(예 8) 다른 사람들은 법적 권리, 보안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를 공유했다.



<그림 13>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에 대한 응답

<예 8> SF1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think marriage is important? Why?*

SF1

*Yes. Religion wise, marriage is a covenant in the Bible. It is like a bond and contract. Something you commit to the opposite partner. For Christians, it is very important. Whatever kind of love it is, family, friends, it brings out another side of you. It is like character development. Marriage is like different seasons and chapters. Marriage is like a milestone in a relationship. I mean it is not compulsory since some don't like the idea of marriage. To me, commitment is important because I want to be anchored in something. You would not want to be in something that is fleeting.*

<예 8>에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종교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SF 1은 자신의 종교적 사고가 결혼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닻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SF 1에게 결혼이란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SF 7과 무슬림인 SF 3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결혼관이 형성되는 데 주로 부모님의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종교가 개인의 결혼 또는 동거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 아니다. 많은 종교 단체는 결혼, 출산 및 가정 생활에 높은 가치를 둔다. 앞선 두 참가자들은 자신의 종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하고 혼전 성관계와 동거를 지양하는 종교적 메시지와 접촉이 잦을 것이다(Thornton, Axinn & Hill, 1992).

연구 참가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이 본인의 성숙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거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와 같은 일련의 질문을 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결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추론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언급한 가장 큰 이유는 평생 동반자와 가족의 존재(예 9, 10, 11)였고, 결혼에 따른 법적 권리 및 혜택(예 12, 13)이 그 뒤를 이었다.

<예 9> KF5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KF5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평생 사는 것이 내가 보지 못한 영역들에서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10> KM1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KM1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 물론 지금 가족이 이미 있지만 가끔씩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혼하면 아내랑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완전한 내 편이잖아요. 그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11> SF5의 인터뷰

연구자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advantage of getting married?*  
 SF5                        *Having some form of support. No matter how independent someone is, humans are social animals, you need social support to some extent. Marriage is an example of social support since there is someone there to share the burden with you, share good and bad days for the rest of your life. It can be healthy for your mental well-being if you put in the effort to keep it going.*

위의 세 가지 예는 참가자들이 결혼에 있어서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결혼이 정서적 지원의 구조로 간주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보장을 통해 삶에 안정성을 가져다준다.

<예 12> KF6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KF6                        *안정감? 금전적으로 같이 돈을 버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 으로는 다 가족으로 위주로 되어있으니까. 내가 아직 결혼할 계획이 없어서 아이도 아마 늦게 낳을 것 같아. 그래서 입양도 생각 중인데 한국에서 입양하려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돼. 그리고 냉동 난자도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해야 쓸 수 있어. 만약 결혼 안 했으면 그 냉동 난자는 아예 쓸 수 없어.*

<예 13> SM6의 인터뷰

연구자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advantage of getting married?*  
 SM6                        *In Singapore, I guess it is being able to buy a house since our BTO system is such that singles must be over 35 years old to buy a house. Even so, the biggest house you can buy is a 2-room flat if you are single. 3-room to 5-room are meant for married couples. Also, you can have children legally if you are married. You are basically entitled to more benefits if you are married.*

<예 12>와 <예 13>은 결혼에 대한 법적 권리와 혜택이 결혼을 바람직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결혼에 수반되는 법적 권리와 혜택은 동거 생활보다 결혼 생활에서 더 크게 적용된다 것이 주된 이유라는 데 동의했다. 결혼은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특히 여성 참가자들은 동거 관계가 정제된 상태로 유지된다면 자신에게는 안정감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비슷하게, 남성 참가자들 역시 결혼을 했을 때 책임감이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한 커플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법률 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수술 동의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예 14). 또한 부부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 자녀를 갖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자산 분할로 귀결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 15). 따라서 양국의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예 14> KF2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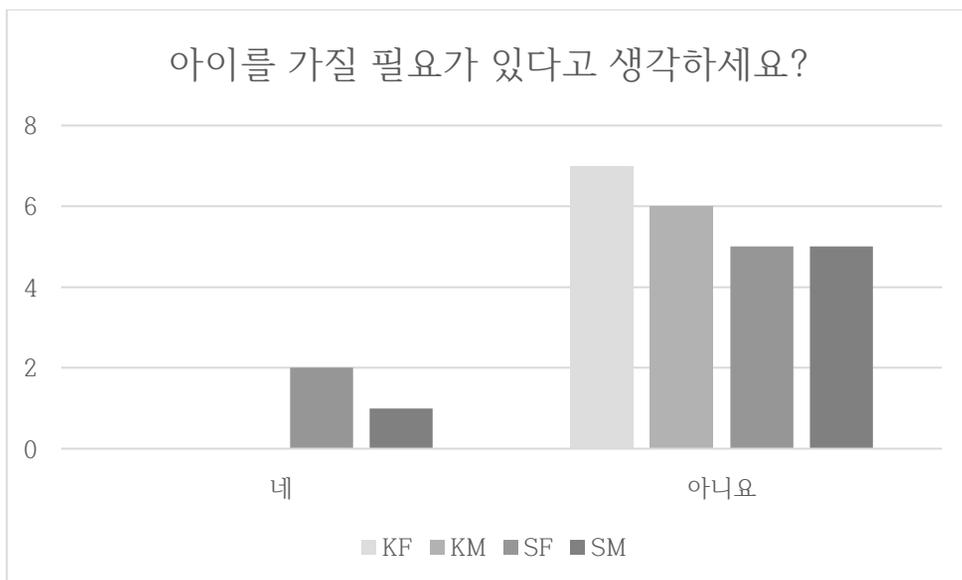
연구자            동거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KF2                네. 우리나라는 동거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서 보호자로 사인해줄 수 없어. 재산도, 제도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15> SM1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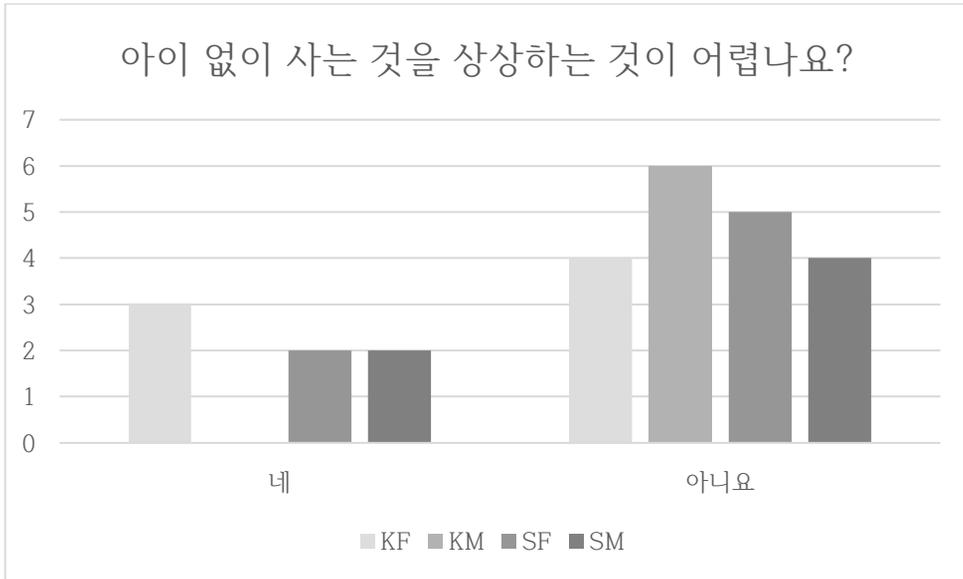
연구자            *Do you think it is better for a couple to be married than to just be cohabitating?*  
 SM1                *Yes, due to legality issues. I have personal experience. My aunt was not married to her second husband so when she passed on, there were a lot of complications regarding her assets and how to distribute her wealth. It is also because of how society is.*

### 1.3.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족 혈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되었다(Chen & Li, 2014). 중국 유교 문화는 특히 혈통과 조상 숭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들은 가족 이름을 지니며 조상 숭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딸보다 더 선호되었다. 또한 자녀는 효도의 한 형태로 부모가 늙었을 때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이러한 효 문화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교는 한국과 싱가포르 두 사회에 모두 깊숙이 퍼져 있다. 그러나 근대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그러한 유교적 가치는 사라지고 있으며 오늘날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필수적인 가족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현상은 참가자들의 반응에서도 볼 수 있다. 양국 참가자의 대다수는 “자녀를 갖는 것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아래 그림 16참조), “아이 없이 사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나요?”(그림 17참조)라는 질문들을 받았을 때 자녀를 갖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자녀가 없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그림 14>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그림 15> ‘아이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나요?’에 대한 응답

위 <그림 14>에 따르면 아이를 꼭 가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 참가자 전체는 ‘아니오’로 응답했고 ‘네’로 응답한 참가자는 싱가포르 참가자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이 전부였다. ‘네’라고 대답한 싱가포르 참가자 3명에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남성 참가자는 본인이 비교적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여성 참가자 2명은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니오’라고 답한 대다수는 자녀를 갖는 것이 필수보다는 선택이며, 부부는 자녀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예 16, 17). 어떤 참가자는 아이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고 다른 참가자는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설명했다(예 18, 19, 20).

<예 16> KF4의 인터뷰

연구자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 하세요

KF4                **아니요.** 아이 있으면 받는 즐거움이 있지만, **아이가 없으면 나**

랑 그 사람이랑 들어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아이를 키우면 돈도 많이 들고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예 17> SM1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having children is an essential part of life?*  
SM1 *No. I think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of life. Some may see having a child as an end goal in marriage but rather, I see marriage as something between me and my wife. I am fully responsible for her, so I need to be committed 100% to her. If my wife wants children, then I would have to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연구자 *So if your wife wants to have children, would you agree to it?*  
SM1 *We have to have a very serious conversation about the finances and the age, whether we can afford or whether it is good for the child's future and development.*

<예 18> KM2의 인터뷰

연구자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 하세요?*  
KM2 *아니요. 그냥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해서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이를 갖는 것은 결혼처럼 준비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나, 애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됐나,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지, 갑작스럽게 낳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19> KM5의 인터뷰

연구자 *아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 하세요?*  
KM5 *아니요. 아기보다 제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0> SF6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having children is an essential part of life?*

*My younger self, I would say it is essential. But at this point in time, recently, I have been thinking about this topic, it is no longer an important part. Because it is really tiring to handle and bring up kids and you have to handle your career at the same time.*

위의 인터뷰 내용들은 양국 청년들이 자녀들을 삶의 특별한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으며, 아이를 갖는 것을 선택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를 낳음으로써 가족의 지속에 대한 책임을 이어가는 것이 가족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되었던 과거와는 달라졌다. 또한 젊은 세대가 이제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상이 이러한 변화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되면 본인의 직업 커리어가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며, 육아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가급적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참가자들에게 각각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 계획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을 건넸을 때 전원이 ‘아니오’ 라고 답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의 경력 활동과 직업 성취감이 자녀를 키우는 데 전념하면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우선 순위가 높았다(예 21).

<예 21> KF4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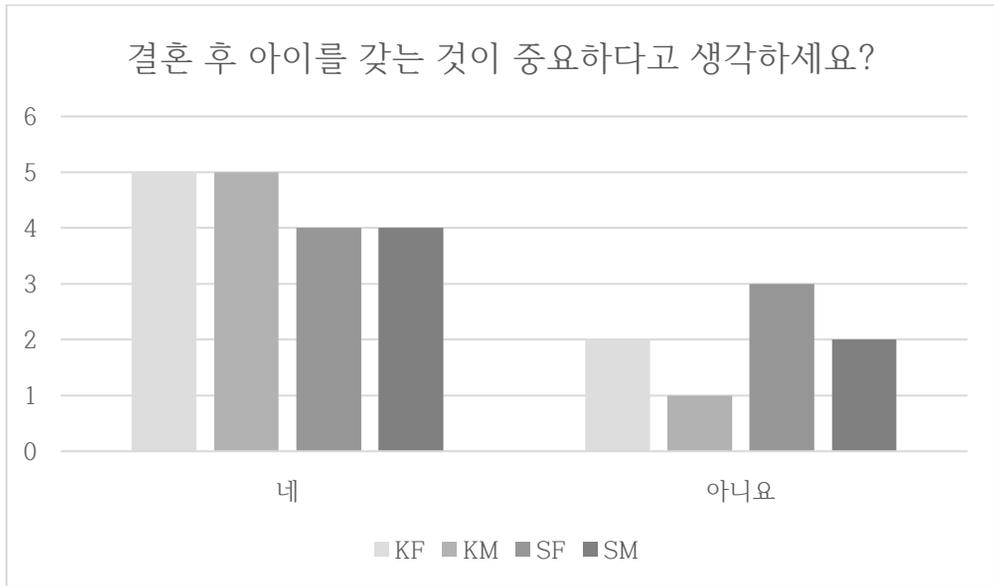
연구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 계획이 있으신가요?  
 KF4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아이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해야 행복할 것 같아. 그냥 아이 위주로 살면 긴 시간을 지내다가 자신이 너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예 17>과 <예 18>에서 찾을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을 자격이 있는 부모로 간주하기 전에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가족 계획에 더 많은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 가족 계획과 핵가족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양국 정부 정책의 결과일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가족 계획 방안을 추진했고 뒤이어 한국 정부도 1960년대에 가족 계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75년 싱가포르는 대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했고, 한국에서도 1984년에 목표치에 도달했다(Ochiai, 2010). 싱가포르에서는 대체 수준에 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정책을 계속 실시하였고 또 다른 출산 통제도 시행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우려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신속하게 출산 촉진 정책으로 전환했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출산율 저하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었고 이를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공유하는 선진 산업 자본주의의 사회적 증상으로 해석했다(Chang, 2010). 1998년에 발발했던 아시아 금융 위기 동안 한국과 대만의 출산율은 더욱 떨어졌다. 사람들은 소규모 가정의 경제적 이익을 보았 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며 자녀 수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 비록 지금 출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었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었던 핵가족 개념이 두 사회 모두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4. 자녀의 지속적인 중요성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자녀가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러냈지만 결혼에서 자녀의 중요성은 여전히 분명하다. 많은 참가자들은 자녀 없이는 결혼 생활이 불안전할 것이며 적어도 한 명은 낳아야만 가족에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네’라고 답했다(아래 그림 16 참조). 그 이유는 자녀를 갖는 것이 부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삶이 더 흥미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예 22). 참가자들은 또한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의 필수 요소이며 마지막 목적지라고 답했다(예 23).



<그림 16> ‘결혼 후 아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예 22> SF2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children are important in one's marriage?*  
 SF2                        *It is important because it can help to strengthen one's marriage. Especially the bond between the parents since they have to overcome certain challenges when they are parenting. But it could also be a reason that breaks people apart but I am not sure. It is important but not a must. At the end of the day, it is still a choice between the couple.*

<예 23> KM6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KM6                        네. 아이는 결혼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결혼의 가장 큰 목표가 아이인 것 같아요. 가족의 평범한 사랑을 주고 싶고 그냥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어야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들어서 잘 지낼 수 있지만 조금 허전할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해보면 아이 없이 늙으면 좀 쓸쓸할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육아가 부모의 기쁨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결혼과 육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그에 따른 책임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이 스스로가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갖는 것은 결혼 후 배우자에게 주는 사랑, 헌신 및 이타심 등과 같은 부모의 도덕적 발달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ardle, n.d.). 따라서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를 낳는 것을 삶의 이정표로 인식하고 있다.

## 1.5. 남녀 간의 상호 이해

양국 참가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공통점은 성 평등의 존재다. 전통적인 성 역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두 성별 간에 상호 이해감이 있다. 두 사회의 유교 이념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세대 간의 엄격한 계층적 관계를 강조한다. 일본과 한국은 성 노동 분업에 대한 강한 전통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유교 이념에서 남성은 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일에 전념하는 것이 가족 내에서의 대표적인 성 역할로 여겨져 왔다. (Takeushi & Tsutsui, 2016). 싱가포르에서도 여성은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Quah, 1990). 그러나 참가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래의 배우자와 결혼 비용을 서로 어떻게 분담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에 한국인 남성 참가자 2명과 싱가포르 남성 참가자 5명은 “5:5”라고 대답했다. 다른 한국인 남성 참가자 3명은 “6:4”라고 응답했고, 다른 한국인 남성 참가자 1명은 “8:2”라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한국 남성들은 싱가포르 남성들에 비해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조금씩 여성에게 기대하는 비용 분담 비율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싱가포르 남성 참가자는 자신이 결혼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싶다고 대답하면서

스스로가 전통적인 가족 배경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평등을 추구하므로 결혼 비용에서 동일한 몫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예 24). 일부 참가자는 결혼 비용을 절반씩 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예 25).

<예 24> SM4의 인터뷰

연구자 *For your wedding expenses, how would you split the responsibility between you and your future spouse?*

SM4 *50-50. I have actually talked about this with my partner. We don't think it is fair for one party to pay more or even everything. This also applies to the relationship as well. So we always just do Dutch pay. I think it is always better to be clear of these things and build a strong foundation for your relationship. If not, I think there will be problems in the future.*

<예 25> KF7의 인터뷰

연구자 *미래의 배우자와 결혼 비용을 서로 어떻게 분담하실 건가요?*

KF7 *5:5가 이상적이긴 한데 만약 내가 돈을 더 잘 벌면 내가 더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반대로도 똑같은 거지. 만약 남편이 돈을 더 잘 벌면 더 낼 수 있지. 물론 한국에서 대부분이 혼수 문화 때문에 남자들이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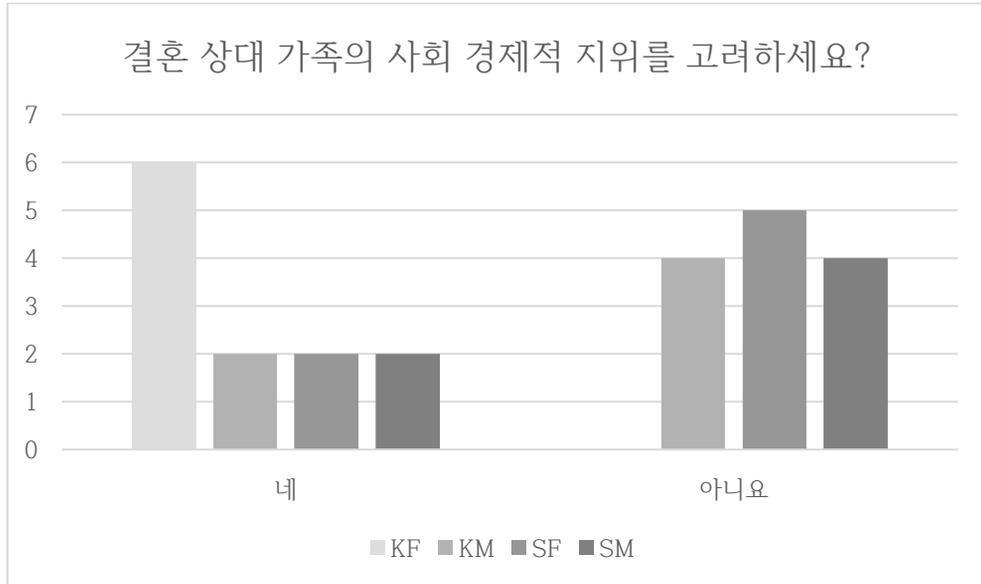
“남편이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과 “결혼이 여성의 경제적 안정 수단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참가자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참가자들은 양 당사자가 가족에 대해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하며 부부가 둘다 일을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결혼을 두 사람을 위한 경제적 안정의 한 형태라고 정의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높은 결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맞벌이 가정’ 이 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참가자 KM5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남녀가 반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국 남성 참가자들은 아내가 주부 역할에 전념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우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게 주부 역할에 전념할 것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에게 그동안 해왔던 공부나 쌓았던 경력을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수년에 걸쳐 진화했으며 청년들이 서로 이성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사랑 및 상대방에 대한 조건 기대치

근대화로 인해 가파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기존 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결혼의 형태는 부모에 의한 중매 결혼이었다. 그러나 근대화를 거쳐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학교는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는 로맨틱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으며(Freedman, 1970), 이제는 누구라도 어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에 빠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참가자들은 적합한 상대가 없으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결혼 상대의 조건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주장했다(Waller & McLanahan, 2005). 참가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상대방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중요성은 두 나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그림 1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여성 참가자 전체(7명), 한국 남성 참가자 2명, 싱가포르 여성 참가자 2명, 싱가포르 남성 참가자 2명은 결혼 상대의 가족 배경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의 배경이 본인의 배경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나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예 26, 27). 반면 '아니오' 라고 답한

참가자들은 가족 배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며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답했다(예 28). 또한 '아니오' 라고 답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에게 큰 빚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데 동의했다.



<그림 17> ‘결혼 상대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시나요?’에 대한 응답

<예 26> SM3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status of your marriage partner's and/or their family's?*

SM3 *I think it is important because if the family background is too different, the upbringing is different so the values can be different as well. The girls I have dated tend to be on the richer side. There is this mismatch since I eat my dinners at hawker centers (kopitiam) and they eat theirs at restaurants. I am an economical guy so I like to save money. Unless we can match in terms of these values, then it doesn't matter.*

<예 27> KF3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나 상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를 고려하세요?

KF3

지금 내 가치관이 좀 바뀌고 있는 지점인데 작년부터 바뀌어. 원래 난 상관없는 거였어. 연애를 해보고 나니까 내 지금 경제 수준, 내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랑 비슷했으면 좋겠어.

연구자

왜요?

KF3

힘들더라고. 단순히 돈이 얼마나 있다는 것 보다 돈을 쓰는 소비 패턴. 예를 들면, 내가 밥 한끼가 3만원, 5만원을 써도 상관 없는 사람인데 상대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 현재 돈이 없고, 밥 한 끼에 만원이 넘으면 벌벌 떨고 이러면, “너무 비싸! 넌 왜 그렇게 사치하니?”이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더라고.

<예 28> KM1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나 상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세요?

KM1

아니요, 저는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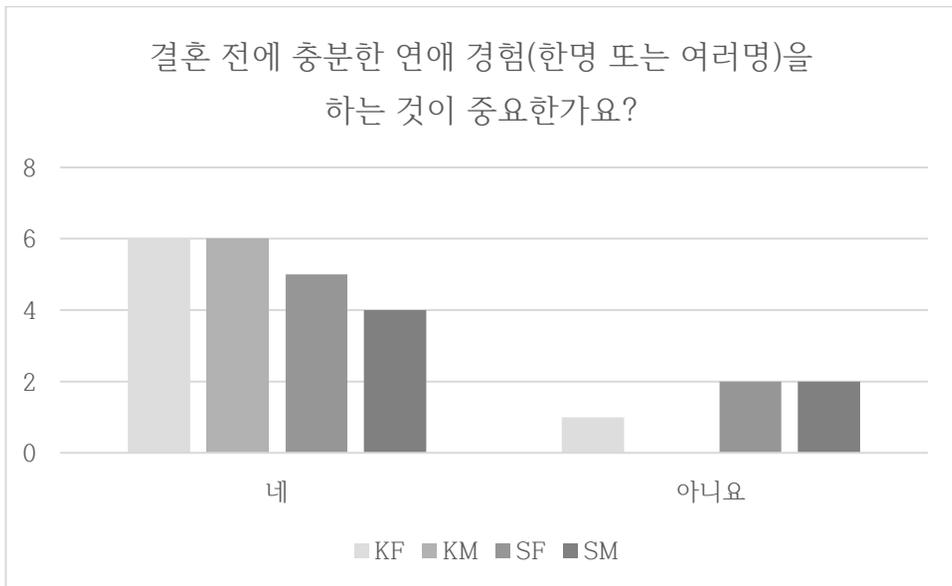
왜요?

KM1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최소 제가 봤을 때 빛만 없으면 돼요. 학비 때문에 생긴 빚은 괜찮은데 도박이나 아니면 신용 불량 같은 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예 26>과 <예 27>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로 대비되는 배경을 가진 두 명의 개인이 만났을 때 가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Maliki(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성격, 매력과 같은 결혼 상대 조건을 바라볼 때 상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결과적으로 저자는 조건이나 배경에서 두 개인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결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상대방이 가진 조건이나 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것과 격차가 큰 사람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만족도가 낮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배경 격차가 큰 사람보다 결혼 상대로 훨씬 더 적합하다.

또 다른 질문은 “결혼 전에 충분한 연애 경험을 하는 것(한 사람과의 오랜 연애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짧은 연애)이 중요한가요?”였다.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던 참가자들은 5명뿐이었다(그림 18 참조). 그들은 '충분한'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주관성의 문제이며 개인마다 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참가자는 모두 자신이 연인에게 바라는 특징이나 조건들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 29, 30, 31).



<그림 18> ‘결혼 전에 충분한 연애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에 대한 응답

<예 29> KM5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하기 전에 충분한 연애 경험(한 명/여러 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KM5                      **네. 가능하다면 먼저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면 40년을 넘게 그 사람이랑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연애 시간은 이 40년보다 더 짧을 거잖아요. 그 40년을 보장하려고 좀 더 길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때는 길면 길수록 서로 더 알아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여러 명과 연애 경험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KM5                   **중요하죠. 많으면 데이트도 많아지고 나중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 30> SF4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sufficient dating experience (with just 1 partner/multiple partners) before getting married?*

SF4                   **Yes. Sometimes when you only date 1 person, you don't really know much about the world or people. It is easy for you to be naïve or blindsided by everything. For example, if one is in a toxic relationship, they wouldn't know how well they have to be treated because they don't have that experience and they will just go with the flow.**

<예 31> KF2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하기 전에 충분한 연애 경험 (한 명/여러 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KF2                   **네. 결혼하기 전에 상대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결혼할 수 있어서요.**

연구자                   **그럼 여러 명을 만나는 경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KF2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러 명을 만나 봤고, 친구는 20살때 부터 똑같은 분이랑 사귀고 있고. 나는 항상 헤어지면 얻는 교훈이 항상 있었어. 아 이런 남자가 아니구나 이런거. 참고할 수 있는 reference 생긴 것 같아. 만나보다가 다음 번에 남자를 고를 수 있는 기준, 내가 맘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기준. 내가 어떤 조건을 진짜 보는구나, 생각보다 이런 건 안 중요하구나 같은 생각을 인식하게 돼요.**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은 생애를 함께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상대를 찾기 위해, 청년들은 상대를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의향이 있다. 한 명 또는 여러 명과 연애를 하면서 축적되는 경험들은 그들이

훗날 참조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본인이 상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에 완벽한(또는 최적의) 상대를 찾았다고 느낄 때에만 정착을 결정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한국과 싱가포르 청년들은 모두 사랑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결혼 상대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려 신중을 가하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년들이 이전에 비해 더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며, 출산 연령도 계속해서 늦어진다.

## 1.7.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기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과 싱가포르 참가자들 사이에 유사점이 몇몇 있었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이 준비가 될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정적 문제 및 경력 문제였다. 그동안 결혼 준비 기준 여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했던 기존 연구들이 몇몇 있었지만, 결혼 준비 기준이 개인의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비교적 그 수가 많지 않다(Larson, 1988). 결혼에 대한 준비성과 태도가 결혼 결정의 핵심 변수로 밝혀졌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결혼 준비의 기준을 조사하고자 한다(Waller & McLanahan, 2005). 참가자들에게 결혼과 출산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을 때 참가자 중 19 명은 ‘아니오’, 1명(남성)은 ‘네’, 4명(남성 1명, 여성 3명)은 ‘어느정도 준비되었다’라고 답했다. 앞선 4명의 참가자는 자신들이 정신적으로는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결과는 19세에서 33세 사이의 청년 대다수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결혼 및 출산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1.7.1. 재정적 걱정

참가자들에게 “결혼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요?”와 “결혼 전에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은 재정적 걱정이었다. 참가자들은 많은 결혼 비용을 예로 들었는데, 주로 결혼 비용, 집 장만 비용 및 생활비를 포함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모두 생활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모두가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결혼 생활에서 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예 32, 33).

<예 32> SF7의 인터뷰

연구원 *Do you feel that financial stability is valuable for a successful marriage?*

SF7 *Yes. Many say that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for a reason. If you are financially stable, it helps you to reduce one area of potential conflict. Statistics also show that a lot of marriages end because of financial problems. But I also feel that it is important to see the potential and background of your partner too. For example, my current boyfriend does not earn more than me know but I foresee him being capable of earning more in the future.*

<예 33> KM3의 인터뷰

연구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KM3 *네. 제가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돈이 있어서 행복하는 건 아*

“하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기회가 더 많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와 아이가 뭘 먹고 싶은데 내가 살 돈이 없다. 물론 그거 안 먹어도 그냥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가족이 웃는 모습 봤을 땐 그런 행복감은 더 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갖는 것에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참가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양육에 대한 높은 비용이었다. 양국 참가자들은 자녀의 교육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예 34).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갖기 전에 경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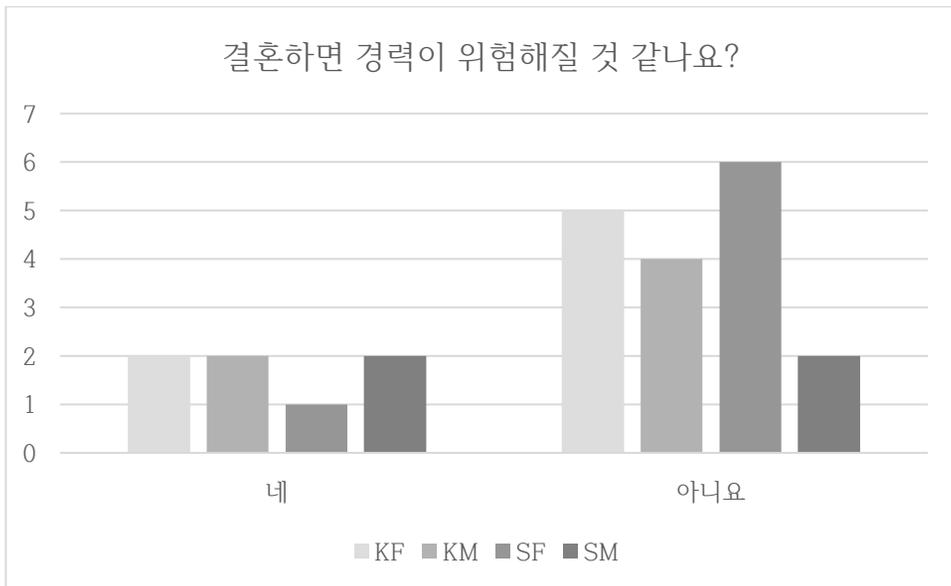
<예 34> KF4의 인터뷰

연구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떤 걱정이 있나요?  
KF4                돈이죠.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비싸. 교육, 사교육, 음악, 이것 저것. 그리고 난 내 애기들 유학을 보내고 싶어. 내가 어릴 때 못 했던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 아니면 애기가 불행 할 것 같아. 만약 내 자식이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해주면 난 내 자신을 너무 원망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만큼을 다 해줄 수 있을 때에만 아이를 낳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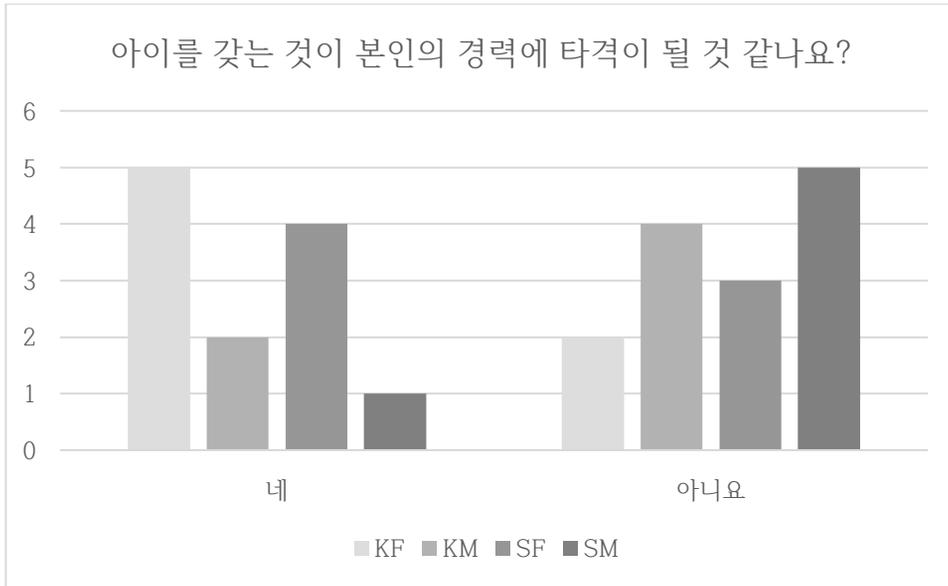
위의 예에서 재정적 문제가 청년들에게 있어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정적 문제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활 수준이 높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오늘날 사회에서 청년들은 다음 인생 부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충분한 저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직장에서 더 긴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이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 1.7.2. 경력에 미치는 영향

참가자들이 제기한 또 다른 고려 사항은 경력이었다. “결혼하면 경력이 위협해질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건넨 결과 대다수가 ‘아니오’ 라고 답했다(아래 그림 19 참조). 일부 남성 참가자는 결혼을 하면 여성들의 경력이 남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 참가자들은 결혼이 경력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일찍 결혼하기를 꺼린다고 답했는데, 이는 보통 결혼하면 짧은 기간 안에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반응은 “아이를 갖는 것이 본인의 경력에 타격이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에서 볼 수 있다. 여성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갖는 것이 자신의 경력을 제한하고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남성 참가자는 3명만이 같은 생각을 했다(그림 20).



<그림 19> ‘결혼하면 경력이 위협해질 것 같나요?’에 대한 응답



<그림 20> ‘아이를 갖는 것이 본인의 경력에 타격이 될 것 같나요?’에 대한 응답

대부분의 여성 참가자들은 결혼하면 출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결혼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출산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력이 안정될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을 선호했다(예 35). 이러한 생각은 과거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 메디컬 센터 거주자 및 동료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종종 자녀를 낳고 출산 휴가의 사용이 직업적 명성과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했으며 또한 대다수는 임신이 업무의 신체적 요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Kin et al., 2018). 따라서 여성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나 충분한 보상 없이는 경력을 포기하고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 35> KF2의 인터뷰

연구자                    아이를 갖는 것이 본인의 경력에 타격이 될 것 같나요?  
 KF2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는 아이 있는 엄마를 배려하  
                                  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대기업이면 이런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지. 하지만 안 된 곳이 대부분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도 당첨되어야 가는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내가 만약에 아이가 어릴 때 직접 키우고 싶다 하면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뒀야는 상황이 생기든지.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육아 휴가 같은거 잘 해주어도 회사에 다시 돌아올 때 내 승진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예 35>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를 갖는 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여성의 육아를 위한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로 대기업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불행히도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제도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든 여성 참여자들은 자녀를 24시간 돌보기 위해 직장에서 사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비용의 낭비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예 37). 따라서 여성의 직업 경력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방안들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 36> SF5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plan on resigning from your job to take care of your children in the future?*

SF5 *No. Definitely not. Unless there is an emergency or there is really no someone to take care of my child full time. Since there is the option of childcare, nanny, I don't think I will.*

연구자 *Why?*

SF5 *There is too much investment in my education for me to get to where I am like my job. So I think if I resign and just take care of my child full time, it means everything I did just goes to drain. I also think I will lose my sense of identity if I don't work and just be a housewife. I will need to rely on my husband for everything which also reduces the authority I have or the say I have in the family I feel.*

### 3. 토론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결혼 평균 연령(marriage median age)의 증가율은 양국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결혼 연령 증가율의 평균값은 남녀 각각 5.58 세와 5.81세였다. 반면 싱가포르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결혼 연령 증가율의 평균값이 각각 2.4세와 3.5세였다. 한국의 결혼 연령이 증가한 비율이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들의 반응을 통해 한국의 결혼 및 출산 지연의 원인이 되는 태도 요인 외에 5가지 외부 요인을 파악했으며, 그 외부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결혼 비용, 둘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긴 준비 기간, 셋째, 사회적 불안정성, 넷째, 가족의 육아 지원 부족, 다섯째, 미디어의 역할이다.

#### 1. 높은 결혼 비용

“결혼하기 전에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참가자들에게 물었을 때 한국 참가자와 싱가포르 참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 참가자의 경우 여성이 언급한 평균 금액은 1억 8800만 원, 남성의 경우는 2억 8300 원이었다. 반면 싱가포르 여성과 남성이 언급한 평균 금액은 각각 \$65,000(약 54,420,000원)과 \$62,500(약 52,325,000원)이었다. 양국의 이러한 급격한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1.1. 집 비용

한국에서 주택과 건물은 대부분 기업과 개인이 개인 소유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주택이 있지만 그 수는 민간 주택에 비해

미미하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은 경제 발전과 근대화의 결과로 계속 상승했다. 서울에 많은 대기업과 기업이 입주하면서 주택 수요가 더 높아짐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서울 평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4160 만원으로 58 % 급등했으며, 이는 이전 두 정권에서 9년간 집계된 증가율의 4.5배다. 현재 서울 84 평방 제곱 미터(약 25.4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8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에서 약 20% 인상됐다(Kim, 2020).

한국 참가자들은 그들의 제일 큰 걱정이 무엇보다도 특히 재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많은 돈을 저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부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웨딩 컨설팅 업체 '듀오웨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택 마련 비용을 포함한 결혼 비용 총액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총 15억 3,3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자금은 전체 결혼 비용의 70.4 %를 차지했다(박혜인, 2020).

한국 정부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련의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세 대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맞춤 주택 등의 정책들이 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의 경우 결혼한 지 7년 미만의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율도 1.2%에서 2.1%로 상당히 낮다. 하지만 한국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이 단기적으로만 도움이 될 뿐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정책들이 전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물론 도움이 되지만 집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친 금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조금이라도 초과할 경우 지원 자격에서 탈락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정책적 도움을

받기 위해 맞춰야 하는 특정 조건들의 기준이 때로는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제대로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예 37, 38).

<예 37> KM4의 인터뷰

연구자            정부의 정책들이 미래에 신혼집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KM4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으로 제한도 많고 신청해도 조건도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책 처음 들었을 때 “아 좋다, 도움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예 38> KF1의 인터뷰

연구자            정부의 정책들이 미래에 신혼집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KF1                아니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 못 할 것 같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딱 파피적인 정책 아니잖아. 기준이 좀 까다로울 것 같아. 공짜로 안 주잖아,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정책 같은 거 사람들에게 주는 양이 이미 정해진 거면 나보다 안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 확률이 더 높지.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국가 개발부의 법정위원회인 ‘주택 개발위원회(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가 국내 대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주택의 유형으로는 주로 HDB 아파트, 콘도미니엄 및 전원 주택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HDB 아파트는 공공주택이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싱가포르인들이 거주하는 주요 주택 형태이며, 싱가포르 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주택 제도이다. 소득에 따라 신청 가능한 아파트 유형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HDB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다. 건설 완료까지 3~4년까지 남은 HDB 아파트를 BTO(Build-To-Order)라 하며, BTO의 경우 일반적인 HDB 아파트에 비해 구매 비용이 낮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예비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 제도이다. 2019년에 새롭게 개선된 제도에는, 저소득 및 중산층에 속하면서 최초로 BTO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보조금을 최대 80,000SGD(약 6천 7백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포함되었다. 보조금은 신청자의 CPF(Central Provident Fund) 계정에 전액 입금되며 추후 아파트를 구매할 때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주택 용자 금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90평방 미터(약 27평) 크기의 HDB 아파트의 구매 가격은 평균 506,331SGD(약 4억 2천만원)로 한국의 서울 지역에 있는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HDB 아파트가 많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부부가 함께 돈을 모은다면 1년~2년 내에 충분히 구매 계약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예 39). 또한 모든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가족의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한국 참가자들은 가족의 도움 없이는 결혼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예 40, 41). 마찬가지로 웨딩 컨설팅 업체 ‘듀오워드’의 조사에 따르면 1000 명의 참가자 중 57.6%가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응답했다(박혜인, 2020).

<예 39> SM2의 인터뷰

연구원	<i>Do you think Singapore's public housing schemes are useful in helping you get a house in the future?</i>
SM2	<i>Yes in some ways. Our HDB is not considered super affordable but if both of you are working full-time, you can definitely afford it after 2 years in the workforce. You only need to pay for the downpayment when you get your BTO so you will have enough time to save up for the rest and pay monthly.</i>

<예 40> SF4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feel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enough in helping couples get married?*

SF4 *Not really, it is helping in the sense that we can be reliant on ourselves I think. Like since we are using our own CPF and earnings, we don't have to ask our parents for money and I think that is good. I don't really want to ask my parents for money so that I can get married. I feel the BTO waiting time is getting way too long these days. If they want more people to get married, they should speed it up or build first and sell later.*

<예 41> KM1의 인터뷰

연구자 *정부가 커플들의 결혼을 돕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KM1 *도움이 있으면 한국의 결혼 비율과 출산율은 떨어지지 않겠지요. 제일 큰 문제는 집인 것 같아요. 집이 너무 비싸고 일반인들이 혼자 집을 못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파괴적인 정책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결혼을 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인 CPF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다(예 40). CPF는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퇴직금 저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혜택 계좌다. CPF 분담금은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서 발생한다. 이 제도가 1955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CPF가 마치 강제 퇴직 제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불만을 표명했다(Central Provident Fund Board, n.d.). 그러나 의료 서비스 및 공공 주택 지원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 확장이 이루어진 후에 더 인기를 얻게 되었다(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n.d.). 고용주는 직원의 매월 총 급여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CPF에 입금해야 하며 개인은 매월 총 급여의 20%를 입금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을 위해 정부가 따로 정한 의무적 저축의 한 형태이다. CPF는 HDB 아파트를 구매할 때 총 비용의 10%인 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 대출금 상환이나 인지세 지불에 사용하는 등 싱가포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 1.2. 결혼 비용

웨딩 컨설팅 업체 듀오웨드의 ‘2018 결혼 비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주택 자금을 제외한 평균 결혼 비용은 약 6천 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결혼 비용 중에 결혼 예단, 예물, 예식장 대관, 혼수용품 비용이 각각 평균 천만원을 넘었다(박성진, 2018). 반면에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 자금을 제외한 평균 결혼 비용은 약 37,000SGD(약 3천 1백만원)이다(Wasserman, 2020).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결혼 비용이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참가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소규모 결혼식을 선호하며 결혼식을 연기하는 것보다 예산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규모로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예 42). 이것은 부부가 가족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는 경향이 있던 과거의 추세와는 다르다.

<예 42> KF5의 인터뷰

연구자	결혼 비용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KF5	아니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오빠도 손님 초대 안하고 그냥 가족끼리 제주도에서 결혼을 했는데 엄청 행복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물론 좋지만 만약에 능력이 없고 빚을 지면서 하려면 그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스물 웨딩 좋아해요.

### 1.3. 남성에게 가중되는 부담

참가자 인터뷰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훨씬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겪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상대방과 결혼 비용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 지 물었을 때 남성 참가자 1명을 제외한 모든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5:5”라고 대답을 했고 한국 참가자 중에서는 3명의 남성 참가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5:5”로 분담하겠다고 대답했다. 홀로 다르게 응답했던 싱가포르 남성 참가자는 결혼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그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근거로 덧붙였다. 다른 참가자들과 다르게 응답한 3명의 한국 남성 참가자들은 6:4 또는 더 많이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결혼한 친구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결혼 비용 분담 비율이 보통 7:3 인 것을 공유하기도 했다(예 43). 웨딩 컨설팅 업체 '듀오'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의 28.9%가 결혼 비용을 7(신랑):3(신부), 27.2%가 6:4, 21.6%가 5:5 로 나누었다(이보희, 2018).

<예 43> KF3의 인터뷰

연구자                    미래의 배우자와 결혼 비용을 서로 어떻게 분담하실 건가요?  
KF5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프로로 다지면 남자는 한 80프로, 여자는 한 20프로? 아니면 70:30. 확실히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여자가 결혼하면 손해를 더 많이 본다는 인식 있거든. 막 임신, 출산, 육아, 커리어를 중단해야 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여자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집은 남자가 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님 세대는 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남자들이 이거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느끼지. 하지만 난 진짜 50 대 50으로 하고 싶다. 예전에 비하면 이런 생각이 많이 줄었지만 대부분 그냥 안 해도 되는 전통들을 빼는 거지. 예를 들어, 여자가 원래 남자의 집에 이바지 같은 거 줘야 돼. 그래서 보통 남자가 집 사오고 여자는 그 집안에 뭘 들어가는 거 사는 거야. 이런 게 줄었지만 보수적인 집안이면 전통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지.

<예 43>에 의하면, 남성이 결혼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적 규범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남성이 집과 지참금을 준비하고 여성이 일반적으로 가전 제품과 같은 혼수품을 책임지는 사회규범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은 아마도 남성이 가정에서 홀로 생계를 책임질 때 생겨 났을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가 시대가 따라 변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남성에 대한 압력의 형태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한국 남성들도 그런 기대를 알고 있으므로 결혼을 늦추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할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 그러나 앞서 다뤘던 주택 가격 인상 문제는 주택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싱가포르가 한국과 비슷한 지참금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념이 있다. 결혼 비용 측면에서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 남성들의 조기 결혼을 돕는 데 유용할 수 있다.

## 2.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긴 준비 기간

모든 참가자들이 결혼과 출산 전에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는 양국을 비교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한국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인이 싱가포르인에 비해 경제적 안정에 도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 증가, 직장 문화의 차이, 교육 년수의 증가 때문이다.

### 2.1.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한국의 실업률은 최근 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2021년 1월 기준 5.4%로 급등해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었다. 한국은 손실에 대응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약 100만개의 일자리를 축소시켰다(The Straits Times, 2021).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기 전까지의 한국의 통계(아래 그림 21)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후 3년 간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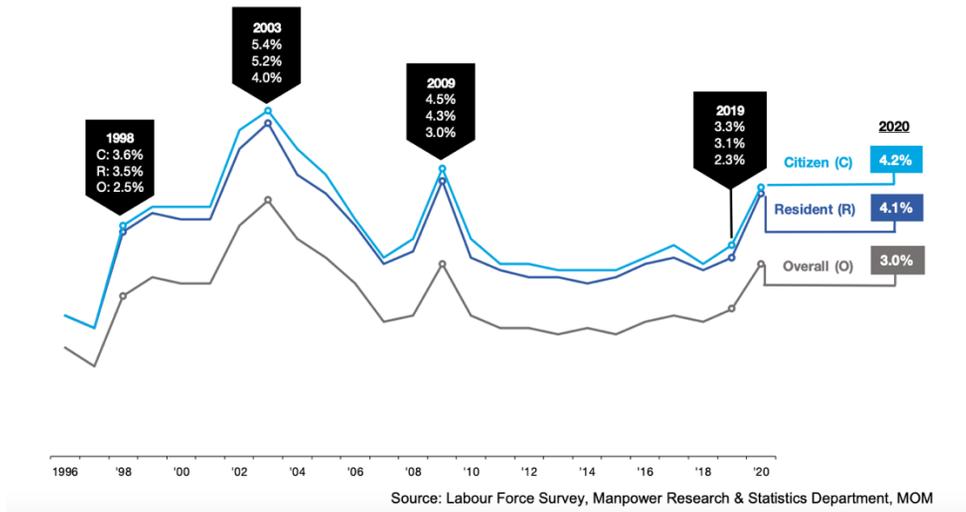


<그림 21> 한국의 연도별 실업률

싱가포르의 경우 코로나19의 결과로 인해 2020년 평균 실업률이 2.3%에서 3.0%로 증가했다(아래 그림 22 참조). 그러나 2003년 사스<sup>①</sup>(SARS)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실업률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또한 실업률은 2014년 이후 2.3%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3.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1).

①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또한 사스는 2002년 11월에 중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Chart 8: Annual Average Unemployment Rate



<그림 22> 싱가포르의 실업률

한국 청년들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부족으로 결혼을 미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것은 경제가 현재의 유행병으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고용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한국의 결혼 연령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는 12개국 중 11개국에서 실업률이 결혼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다뤘던 연구를 뒷받침한다(Lester, 1996). 따라서 한국 청년들의 조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 시장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그들은 생애의 다음 단계인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 2.2. 직장 문화의 차이

직장에서 회식 자리를 갖고 술을 마시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고 연대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문화에 깊게 뿌리 박혀 있다. 회식은 종종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되며 업무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식은 보통 1차,

2차 및 3차까지 이어져 저녁 7시에 시작하여 바로 다음날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이 좋지 않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신입 사원은 종종 기업의 방식대로 통과 의례처럼 회식 때 술을 마시며 출사표를 던지곤 한다. 2018년 현대글로벌비스의 27세의 신입 사원이 회사 워크숍에서 회식에 참여하면서 술을 마신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화에 변화의 압력이 촉발되었다(Yu & Shim, 2018). 기업과 정부가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준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과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퇴근 후 음주는 많은 직장에서 관례로 남아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기성 세대의 사고 방식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참가자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다(예 44 및 45).

<예 44> KM6의 인터뷰

연구자                    왜 한국인들이 늦게 결혼하는 것 같나요?  
 KM6                      음.. 결혼하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었던 안정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결혼하면 대부분 시간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유 시간도 없어지고 내 커리어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회식 가야 되는데 아내의 눈치 봐야 되고 안 가면 상사들의 눈치 봐야 되고. 곤란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보통 애기 낳잖아요. 만약 내가 회사 다니면 회식도 있으면 되게 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육아. 진짜 피곤할 것 같아.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들.

<예 45> SM6의 인터뷰

연구자                    Do you have anything you want to add on before we end the interview?  
 SM6                      *I just wanted to share my experience when I came to Korea for a work trip. I think it may help you. I have actually had quite a bit of experience with Korean work culture since I go there often for my work trips. You know how in Korea there is the whole company dinner or 회식? They are really very*

*serious about it. It is like after work 6 p.m., we go for dinner, then afterwards first round. It just keeps going like third round at 3, 4 a.m. in the morning and next day there is still work. I went for the first two rounds and had to ask them to call it quits because I was so tired. Luckily, they stopped since I was the guest but I can tell that it would have gone till before they start work if I didn't say anything. **Everyone** just had to go along with it unless the higher ups said they are done. So, with such lifestyle, I don't think people really have time to like date or even find someone or even think of building a family.*

<예 44>와 <예 45>는 회식이 한국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회식이 자주 열리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또한 한국인은 회식에 참석하는 것이 경력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직업 경력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연애나 결혼 같은 헌신을 피하려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직장 문화는 또한 가정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한국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경력이 안정된 단계에 있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싱가포르에는 그러한 기업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고 가족을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하나 줄어든다.

### 2.3. 교육 년수의 증가

경제적 안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긴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이유 중 마지막 요소는 교육에서 긴 세월을 쓴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제도는 일반적으로 6-3-3-4 제도이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대학 졸업까지의 교육 과정을 가장 빠르게 마칠 때의 나이는 각각 만 22세와 만 24세가 된다. Chang(2010)에 따르면 한국 독립 이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식 교육을 '근대화 시민이 될 수 있는 여권'(passport to 'citizenship to modernity')이라고 표현을 했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예 없다는 것은 문맹뿐 아니라 적은 급료,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선진 문명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 자격(학벌)은 지적 훈련의 수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계층에서의 개인의 위치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 시간 및 노력을 더욱 투자하고 헌신한다. 아이들이 대학 입시 수능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수많은 학원에 보낸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라 불리는 3대 대학에 진입한다는 것은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이 한국인 삶의 1차적 목표이자 자신의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학교에 입학하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7년 최경수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들은 취직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전 세대의 사람들은 청년 시절 소득을 위해 일자리를 찾았던 반면 현 세대의 청년들은 평생 직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기업에서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기업이 자신의 경력 발전에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와 자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평생 직업의 관점에서 더 높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미래를 위한 경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사 시험을 여러 번 다시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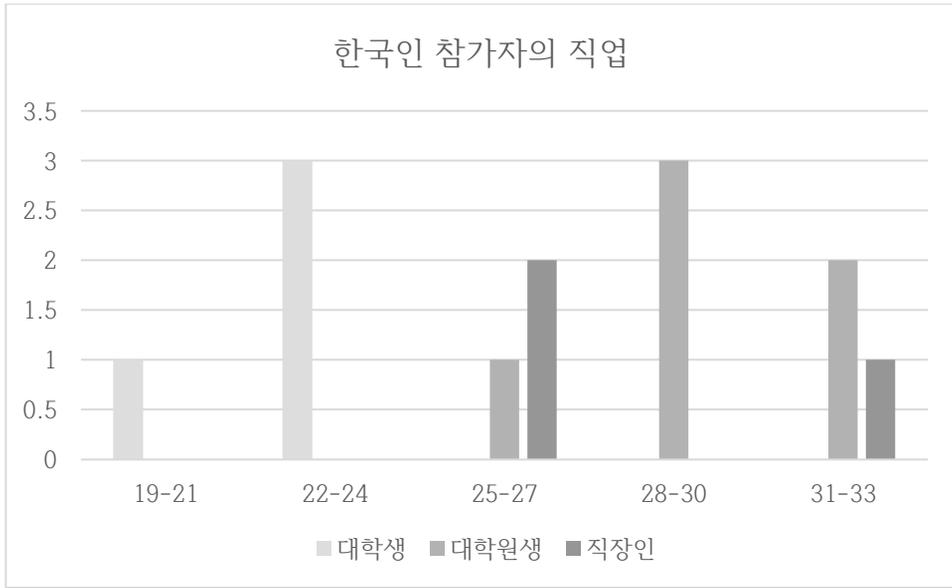
KF1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성균관대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대학교에 재입학 하였는데, 그녀는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중퇴 이후 수능 시험을 두 번이나 응시했다. 또한 그녀는 졸업

지연이 결혼에 대한 그녀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예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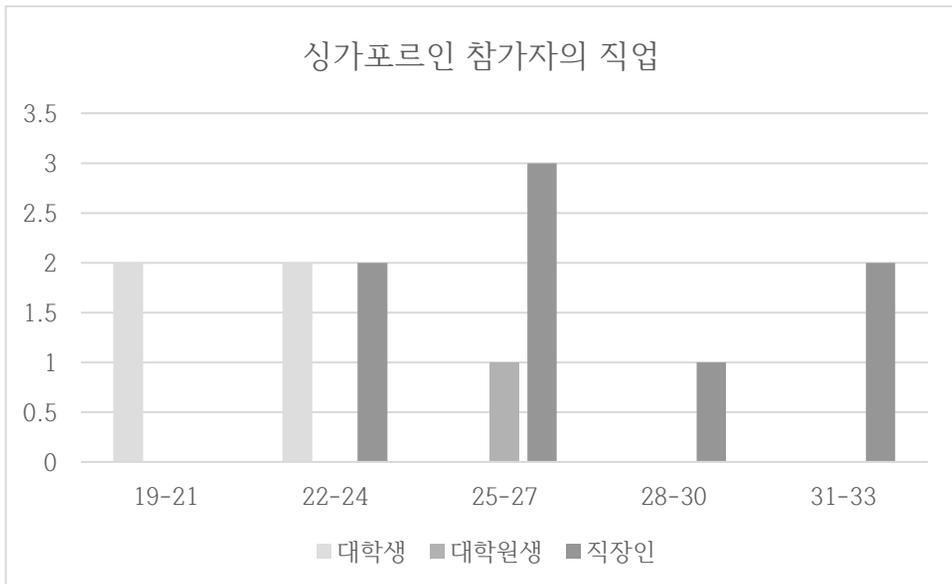
<예 46> KF1의 인터뷰

연구자                   언제 결혼할 계획인가요?  
KF1                       국제 나이는 33살. 난 지금 삼수했거든. 그럼 사실 엄청 늦은 거잖아. 내 또래 친구들이 거의 졸업인데 난 또 신입생. 게다가 난 대학원 가고 싶어서 졸업하면 아마 27살, 취직도 하고 안정적인 직업까지 한 30살 넘을 것 같아. 중간에 휴학을 할 수도 있고. 자격증 준비 아니면 인턴도 해보고. 그리고 그 때는 돈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집값도 쪽쪽 올라가고 있는데 그땐 난 집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나 KF1을 포함한 한국 참가자들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휴학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인턴십 지원, 학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 워킹 홀리데이 경험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휴학을 이용하여 인턴십 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좋은 회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이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고 때로는 졸업하기까지 5년에서 6년이 걸릴 수 있다. KF1은 학사 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고, 이는 다른 한국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했다. 한국인 참가자 13명 중 3명만이 풀 타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 참가자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다. 반면 한국 참가자와 나이가 비슷한 싱가포르 참가자는 13명 중 7명이 이미 풀 타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그림 23, 24). 싱가포르 참가자 중에 대학원생은 단 1명뿐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사람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학업을 계속할 필요성을 찾기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윗부분 2.1에서 언한 실업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림 23> 한국인 참가자의 직업



<그림 24> 싱가포르인 참가자의 직업

한국 참가자들은 학업을 계속 이어가면 취업에 더 유리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학부 졸업생의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 지연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im&Lee, 2019). 이는 한국의

취업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며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국의 결혼과 출산율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조기에 취업하고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실업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의 불안정성

한국인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한국 참가자 5명은 자녀를 갖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이유가 본인이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자녀에게 그대로 겪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얘기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본인이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아이를 갖지 않으려 했다. 한국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정부 및 현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 3.1. 치열한 경쟁 사회 분위기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19년 인구 10만명 당 21.2명으로 OECD 최상위권에 속한다(World Health Organisation, 2019). 자살률은 또한 2007년 이후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였다(The Korea Herald, 2019). Zong (2015)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가정 문제(30%), 또래 문제(26%), 학업 문제(22%)였다. 학생들에게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며, 수능 시험을 잘 보고 명문대에 입학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만연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시험들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사교육 및 개인 과외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이미 중학교 개념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싼 과외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비는 학부모 예산 계획에서 최우선 순위이다. 한국은 타국에 비해 비교적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비용에서 현저하게 지출을 쏟아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장경섭, 2010). 이러한 과정을 겪어 왔고 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과정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한국의 교육 제도도 참가자들로부터 융통성이 없고 경쟁만을 부추기며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가자 KF7은 비교적 공부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해외에서 자녀를 키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한국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일념 하나에 너무 집착하여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진정으로 탐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KF7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탐구할 수 있는 여가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예 47).

<예 47> KF7의 인터뷰

연구자	아까 왜 아이들을 해외에서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KF7	한국에서 압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학교 가려고 줄 서야 되고 경쟁도 심하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고 시도하는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교육 제도는 경제 성장의 촉진 수단으로서 교육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한국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다. 수능과 대응되는 GCE ‘O’ Levels, ‘A’ Levels과 같은 입학 시험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와 난양 공과 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와 같은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위신이 있다.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교육 경로가 있는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방법 대신 폴리테크닉(Polytechnics)에

입학하여 특정 과목을 전공할 수 있다. 이 폴리테크닉 졸업장은 학생들에게 취업 혹은 대학 입학의 선택을 허용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고용률은 한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는 싱가포르 참가자들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싱가포르 참가자 중 자녀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우려를 꺼낸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에 학위취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 ‘SkillsFuture’이라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학위취득을 중시하는 대신 양질의 평생 학습 및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술 습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SkillsFuture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크레딧(credits)은, 만 25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개인의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SGD(약 42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 사회에는 학업적인 경쟁 외에 다른 형태의 경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평판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학교 입학은 매우 경쟁적이다. 이 문제는 KF2와의 인터뷰에서도 제기되었다. 그녀에게 현재의 정책이 출산 장려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유치원 입시 경쟁을 예로 들며 유치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긴 대기자 명단 순서를 기다려야 하며 그 문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예 48).

<예 48> KF2의 인터뷰

연구원	정부가 커플들의 결혼을 돕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KF2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 만약 효과가 있으면 우리의 출산율이 왜 OECD 국가 중에 꼴찌지? 난 최근에 알았는데 유치원도 줄어야 돼. 내 회사의 유치원은 최근에 모집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리 많이 없어. 그래서 결국 이 유치원 못 다니는 아이들도 많아. 지금 유치원부터 경쟁해야 되는 시대야. 유치원도 이미 심한데 초, 중, 고는 상상도 안돼. 게다가 부모가 해줘야 하는 일이잖아, 안 하면 나중에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고.

<예 47>과 <예 48>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교육 제도를 재평가하고 상위 대학에 대한 강조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발견된 결과는 송동욱과 이기형(2017)의 연구에서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현실에 대한 견해를 탐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들은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삼포 세대 이론에 공감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로 극심하게 낮은 취업률 및 중장년층과의 격차 등의 요인들을 언급했다. 더욱이 정치인의 부족함과 그들이 내놓는 장기적 해결책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준비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3.2. 정부 및 현 제도에 대한 불신

한국 참가자들이 언급한 한국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미 구축된 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1981년과 2001년 사이에 실시된 여러 국제 조사 및 중앙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한국 개발연구원 (KDI), 2006). Jung과 Sung (2012)의 연구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다양한 이유를 조사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스캔들, 부패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정책 입안 및 실행 측면에서 민주 국가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혐의로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을 받아 큰 화제를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는데, 분명히 대선 전에 대통령 공약으로 정치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패 사건의 발발을 지켜본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과 주택 정책의 부패 여파를 한 번에 맞이하게 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의 정부 지지율을 기록했다(Lee, 2021).

정부와 현 제도에 대한 한국인의 흔들리는 신뢰는 결혼과 출산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참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 방안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뿐더러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 49, 50, 51).

<예 49> KF4의 인터뷰

- 연구자            아동 수당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KF4                너무 작은 돈인 것 같아. 아이를 키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데 돈이 힘든 상황이면 차라리 아이 안 낳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 예를 들면, 큰 도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애기 낳으면 돈 더 많이 주는 곳도 있어. 어떤 사람이 그 지역 가서 아이를 낳아. 낳고 나서 바로 큰 도시로 이사해. 이런 사례 너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
- 연구원            그럼 뭘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 KF4                그냥 법이 좀 더 세야 될 것 같아. 한국 법이 너무 약해서 문제인 것 같아.

<예 50> KM5의 인터뷰

- 연구자            한국의 부부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KM5                저는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3층 건물 많거든요 한국에서. 그런 늙은 건물을 높은 아파트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재개발하려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서명을 못 받은 사례가 많아요. 최근에 그 LH 사건 있었잖아요. 그건 진짜 큰 문제예요. 이런 거 해결 안 하면 젊은 사람

**들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예 51> KM3의 인터뷰

연구자            정부가 커플들의 결혼을 돕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KF2                저는 지금 있는 정책이라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회사  
다니고 하니까 육아 휴직을 낸다고 하면 회사가 못하게 할 때  
처벌? 예를 들어, 제가 육아 휴직을 쓰려고 사장님께서 메일을  
보냈는데 지금 바쁘다고 꼭 지금 해야되냐고 하고 눈치를 줘  
요. 나중에 연봉, 승진에 대해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  
아 휴직에 대해서 정부 주는 지원? 회사에서 성교육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말고도 육아에 대한 교육, 육아 휴직을 어떻게  
해야 잘 활용 할 수 있는지. 교육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  
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법 만들면 남자도 육아휴직 써?  
근데 사람들이 아이는 여자가 봐야지라는 인식이 아직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바꾸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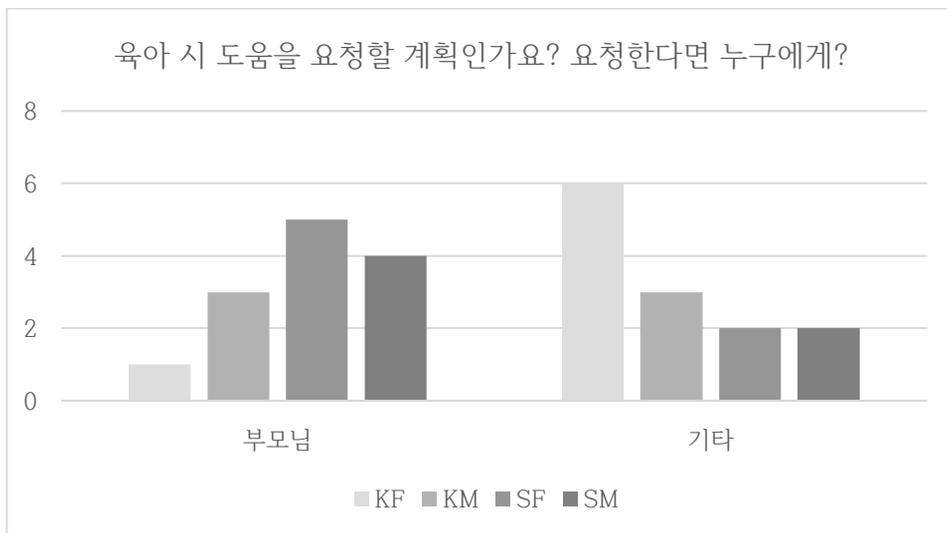
위의 예들을 통해 한국 여성 참가자와 남성 참가자 모두 이미  
시행된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정책에  
대한 부패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과 같은 문제로 인해 한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다. 신혼부부와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압력과  
부담이 가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KM3을 비롯한 한국  
참가자들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법을 잘 준수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편이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기도 한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경력에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100%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청년층, 특히 여성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가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국은 최근에 아동 학대 범죄에 주목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 사건들로 인해 부모는 자녀의 안전에 대해 안심하지 못한 채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 예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직원이 장애 아동을 학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한 피해자 부모와 인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사건이 있었다(박은지, 2021). 한국 사회에서 분노를 일으킨 또 다른 사례는 12년의 징역형을 끝내고 출소한 아동 강간범 조두순의 사건이었다. 조두순은 피해자를 강간했을 때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심신미약으로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의 석방은 대중의 공포와 불안을 불러 일으켰고 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웹사이트에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했다(BBC News, 2021). 이러한 요인은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에 기여한다. 반면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인터뷰에서 그러한 우려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싱가포르에 존재하는 엄격한 법률 때문일 것이다. WIP (World Justice Project)에서 집계한 2017-2018 법치 지수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113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범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되는지, 정치적 불안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요인을 포함한 질서 및 보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Vijayan, 2018).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현 법률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를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 4. 가족의 육아 지원 부족

Aassve와 Meroni 및 Pronzato가 2012년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부모의 육아 지원이 개인의 자녀 출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부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출산 가능성이 증가하며, 반면 조부모가 이미 다른 손자를

돌보는 데 몰두하고 있다면 부부가 아이를 가질 확률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참가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육아 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인가요? 요청한다면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에 의하면, 다수의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부모에게 함께 돌봐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한국인 참가자들에 비해 더 많은 응답이었다(아래 그림 25 참조). 대부분의 한국 참가자, 특히 여성 참가자들은 향후 육아 및 보모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림 25> ‘육아 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인가요? 요청한다면 누구에게?’에 대한 응답

베이비시터처럼 아이를 돌봐주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양국 참가자들 사이의 공통된 이유는 바로 부모의 노쇠화였다. 하지만 한국 참가자들에게는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문제도 큰 이유이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대구, 광주 등 한국의 다른 지방 출신이며, 그들은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혼자 서울에 왔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부부가 외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한 달에 최대

20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예 52 참조). 외부 서비스의 이용은 부부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혼과 출산을 더욱 지연시킨다.

<예 52> KM1의 인터뷰

- 연구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육아는 누구한테 맡길 건지.
- KM1                저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아요. 만약 부모님이나 장모님이 가까이 사시면은 괜찮은데, 하지만 이런 경우 많이 없잖아요. 다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견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정을 하고 일단은. 그래서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 베이비시터는 고려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아이 생기면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한달은 백만 넘게 나올 건데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업체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면 비싸겠죠.

반면에 외부 서비스를 고용하려는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공식적으로 FDW (Foreign Domestic Workers)로 알려진 '외국인 가사 도우미' 서비스의 이용을 주로 언급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70년대에 탁아소를 설립하고 FDW를 도입하여 교육받은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FDW를 고용하는 가구는 보조금을 받는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월 고용 비용은 일반적으로 최소 1,300SGD(약 1백1십만원)이다. FDW는 고용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며 아이들 돌보기, 집안일 및 식사 준비를 도와준다. 이와 같은 편의성 때문에 많은 가정이 FDW를 서비스를 이용한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252,600명의 FDW가 있으며 이는 다섯 가구마다 1명의 FDW를 고용한다는 의미와 같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싱가포르 가정의 FDW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Awang & Wong, 2019). 또한 싱가포르는 한국에 비해 영토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족과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육아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거나

일시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싱가포르 참가자들은 또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잠깐이라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예 53). 또한 싱가포르인은 육아에 대한 대안과 옵션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 필요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한국인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므로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출산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싱가포르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육아를 하는 데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드는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녀를 기꺼이 가질 수 있다.

<예 53> SF6의 인터뷰

연구자                      *What is your future plan for your child in terms of caretaking?*  
 SF6                              *I would ask my parents or future-in-laws and maybe stay nearby. If they are not okay with it then maybe baby sitter then infant care. I think parents will be useful to help take care of children temporary also. For example, if my husband and I have an appointment and there is no one to take care or like a date night out. At least I know I have them to help last minute.*

## 5. 미디어의 부정적인 역할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Luce, Cash & Hundley, 2016). 여성들은 출산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서 고위험 출산에 대해 묘사하였었는데, 이는 미래 출산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출산 리얼리티 쇼는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여성들이 오히려 쇼를 보기 전보다 출산을 더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Rink, 2012).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Song 외(2008)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려는 여성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국 참가자들도 미디어의 역할을 언급했다(예 54). 인기가 높았던 TV쇼인 <펜트하우스>와 <부부의 세계>와 같은 드라마는 결혼 문제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예능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이든 물어 보살>, <안녕하세요>, <연애의 참견> 등과 예능 프로그램들은 공부부터 부부 관계, 육아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토크쇼 형식으로서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에서 주로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는 대부분 무책임한 남편, 부정을 저지른 아내, 육아 갈등, 부부갈등과 같이 가족의 갈등을 다룬 내용들이며, 이로 인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람들의 태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드라마와 예능과 같은 미디어의 노출은 한국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54> KF1의 인터뷰

연구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KF1	난 교육 문제. 요새 내가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보고 있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고민 때문에 신청한 거예요. 보니까 와 장난 아닌데? 출연했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와 아이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육아도 힘들니까. 가치관이 나 내가 잘 키울 수 있는지.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예 54>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육아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육아의 어려움과 힘든 점은 이제 미디어에서 더 눈에 띄게 나타나며, 이는 청년들이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든다. 이것은 개인주의의 부상과 결합되어 아이를

낳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마찬가지로 <나혼자 산다>, <슈퍼맨이 돌아왔다>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의 호화로운 집이 드러나는 장면은 비슷한 생활 수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참가자 중 한 명은 인터뷰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개인이 원하는 결혼식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예 55). 다른 사람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 55> KF5의 인터뷰

연구자	한국인들이 왜 늦게 결혼하는 것 같나요?
KF5	음, 이 세대는 성장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지는 사례를 많이 못 본 것 같아.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적극적인 사례나 부정적인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현재 SNS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활, 결혼식 등등 다 비교하게 돼요. 그냥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도 역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사회적 비교를 촉진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Jiang & Ngien, 2020). 그러나 싱가포르인의 미디어 의존도는 한국에 비해 다소 낮다. 학자들은 싱가포르의 현지 TV 방송사인 MediaCorp가 한국 프로그램, 넷플릭스 및 유튜브에 대한 현재 수요와 경쟁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Lim, Bali & Moo, 2019). 또한 싱가포르의 TV 프로그램은 도발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주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감독을 받는다(Lee & Willnat, 2006). 따라서 싱가포르인들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와 SNS의 영향력이 싱가포르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 생활과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대신 미디어의 순기능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장려해야 한다. 미디어를 통해 결혼과 육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 4. 결론

### 1. 요약 및 연구의 중요성

본고는 한국과 싱가포르에서의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다른 인식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준비에 필요한 기준들을 파악하고 비교한 결과, 양국 참가자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매우 유사한 태도를 보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가족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출산을 해야 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인 삶의 종착역이 아니며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양국 참가자들의 태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의 학력 향상,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개인주의의 부상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보지 않고 꿈을 이루고 경력을 쌓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양국의 생활 수준은 점점 더 높아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청년들이 다음 인생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늦게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둘째, 양국에서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과 자녀의 중요성이 양국에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법률적 관점에서 결혼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며 결혼이 진지한 관계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다. 자녀에 관해서도 많은 참가자들이 아이들은 부부간 사랑의 결실이며 결혼의 정의의 일부라고 묘사했다.

셋째, 수십 년 전과 달리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젊은 세대에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남성 참가자들은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배우자에게 엄청난 이해를 보였고 배우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두 성별은 결혼 비용과 관련하여 몫을 동등하게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넷째, 양국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해 쉽게 결혼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방과 사랑에 빠졌을 때에만 결혼을 선택한다. 또한 양국의 청년들은 비슷한 사회 경제적 지위 및 배경 측면에서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대를 찾았을 때 비로소 결혼을 선택할 것이며, 그러므로 청년들은 정착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고 출산이 지연된다.

다섯째, 양국의 청년들이 결혼 전과 출산 전에 가지는 고민은 상대적으로 비슷했다. 주요 관심사는 재정 상태와 주택 가격이었다. 여성 참가자들이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또 다른 우려는 결혼이 자신의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돈과 경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결혼보다 경력을 우선시하고 충분한 저축을 보장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혼 연령은 싱가포르의 결혼 연령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고는 양국 간 결혼 연령의 증가 속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첫째, 한국에서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다.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집을 구매하는 비용과 결혼 준비 비용은 모두 한국이 더 비싸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이다. 반면 싱가포르의 CPF와 같은 제도는 싱가포르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 준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인들은 남녀 간에 평등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우 결혼 전에 집을 준비해야 하거나 여성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 남성들은 집을 구매하기 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인은 싱가포르인에 비해 훨씬 늦게 경제적 안정을 얻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높은 실업률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이다. 학사 학위를 가지고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인들은 포트폴리오와 학업 성취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재수 및 삼수, 인턴을 위한 학기 휴학, 대학원 진학 등을 선택하며 이에 따라 학업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학업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면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도 늦어지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회사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한국의 직장 문화도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 잦은 야근과 회식 문화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결국 청년들은 적절한 상대를 찾기 위한 사교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직장 문화는 직업 경력의 성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은 자신의 경력을 위해 적절한 상대를 만나

정착하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

셋째,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도 한국이 싱가포르에 비해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주요 요인이다. 이는 한국 청년들이 몸소 경험했던 경쟁 적인 교육 제도 및 사회 분위기를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년들은 한국 정부와 현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 신혼 부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은 청년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한국 정부가 그들의 제도를 재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면 많은 청년들이 아예 출산을 거부하거나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한국에서는 싱가포르보다 상대적으로 육아와 관련된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가족의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점이다. 싱가포르는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족 간 거리가 한국에 비해 매우 짧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가족의 지원 외에도 외부 아이 돌봄 서비스 역시 한국의 경우 비용이 더 비싸며 서비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한국 정부는 베이비시터와 같은 보육 서비스를 점검하여 육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청년들이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디어가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행한 관계에 놓인 가족의 일상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결혼 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청년들은 SNS의 활발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쉽게 노출되며 정보를 빠르게 수용한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미디어를 통해 결혼과 육아의 어려움과

힘든 점을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 문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분야에서 그동안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결혼과 출산 문제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은 데이터와 결과는 미래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며 연구자들은 이 연구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이다.

## 2. 한계와 미래 연구

본 연구는 초기 연구 참가자의 50%가 인터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택한 참가자 샘플로 구성되었다. 또한 두 국가에서 온 13명의 표본 크기는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일반화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이다. 한국 참가자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다수가 대학원생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이가 비슷하지만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국인을 더 많이 포함시켰다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긴 인터뷰 기간은 연구 피로를 초래할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는 각각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대화 편향(interlocutor bias)이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참가자들을 위한 인터뷰는 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이 진행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을 대표하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의견이 더 편하게 공유될 수 있는 한국인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했다면 그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이 논문의 범위로 인해 모든 인터뷰 데이터가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회 문제를 비교하는 미래 연구의 길을 열었다.

향후 연구에는 결과를 입증하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한국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더 큰 표본 크기가 포함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경향과 결론이 광주, 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미래 연구는 싱가포르 공동체를 더 잘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싱가포르인은 대부분 중국계 싱가포르인이었으며 따라서 다른 민족 출신의 싱가포르인 참가자가 많이 참여한다면 더 공정한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원들은 또한 더 확대하여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부 정책과 고령화와 같은 현재 사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비교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정책과 방안을 고안할 때 양국 모두에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 부록 A

<한국어 동의서>

## 한국학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동의

### 한국과 싱가포르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서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Tan Mei Jing, Jo가 실시하는 이 연구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연구는 에릭 모브랜드(Erik Mobernd) 교수의 감독 하에 석사과정 논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 연구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참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아래 정보를 읽고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의 결혼관 및 결혼 선택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선택에 따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또한 특정 정부 정책이 이러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귀하는 만 18세에서 32세 사이의 한국인으로서 이 연구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절차에 대한 설명

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구자가 당신과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인터뷰는 한 번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인터뷰는 ZOOM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편리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수집 절차의 일환으로 전체 인터뷰 내용이 음성 녹음됩니다.

#### 보상금

이 연구에 대한 보상의 형태는 없습니다.

#### 잠재적 위험요인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은 없습니다. 본 연구과제 참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해 발생 시 서울대는 본 연구 참여자에게 의료·입원 또는 기타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입은 상처에 대한 의료·보상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잠재적인 보상

본 연구의 참여와 관련한 보상의 형태는 없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교 연구에 관련한 새로운 분야에 기여할 것입니다.

### 기밀 유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입수되고 귀하와 함께 식별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귀하의 허가 또는 법률에 의해서만 공개될 것입니다. 연구자만이 녹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밀성이 유지됩니다. 만약 녹음의 일부가 연구 발표에서 사용될 경우, 녹음된 음성은 스크립트로 전환될 것이고, 또한 개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참가자의 이름과 관련자의 이름은 논문에서 가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완료된 후에 녹음 파일은 삭제됩니다.

### 참여 및 중단

이 연구에 참여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불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를 도중에 중단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조사관 식별 정보

이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000-0000-0000(연구자, 탄 메이징, 조) \*\*\*\*@snu.ac.kr 또는 연구 감독관인 에릭 모브랜드(Erik Mobrand) 한국학 교수 \*\*\*\*@snu.ac.kr 으로 연락 주십시오.

동의서: 한국인과 싱가포르 청소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본 동의서에 첨부된 학습 정보 시트의 정보 및 절차를 읽고, 논의하고, 이해 하였습니다. 본인은 자유 의지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혹은 중간에 중단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아니요,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_\_\_\_\_  
참가자 성함

\_\_\_\_\_  
참가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원 서명

\_\_\_\_\_  
날짜

<영어 동의서>

**INFORMED CONSENT FOR PARTICIPATION IN KOREAN  
STUDIES STUDY**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s' and Singaporeans' Youths' Attitudes  
towards Marriage**

Introduction

You are asked to participate in a research study conducted by Tan Mei Jing, Jo, from the Division of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is study is conducted as part of a final semester graduate project,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Erik Moberand. You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s entirely voluntary. Please read the information below and ask questions about anything you do not understand, before deciding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Purpose of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rriage choices made by Korean and Singaporean youths and to understand the reasons behind these choices. This research also hopes to shed light on how certain government policies have influenced these choices.

You have been ask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because you are a Singaporean aged between 18 to 32 years old.

Description of Procedures

If you volunteer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you will be asked to do the following things:

The student researcher will be conducting a verbal interview with you. The interview will be held in a single session and will last approximately 1 hour to 1 hour 30 minutes. The interview will be done at a convenient and quiet location over ZOOM. As part of data gathering procedures, the entire interview session will be audiotaped.

Compensation

There will be no form of compensation for this study.

Potential risks

There are no anticipated risks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in this study. In the event of physical and/or mental injury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project, Seoul National University does not provide any medical, hospitalization or other insurance for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study, nor wil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vide any medical treatment or

compensation for any injury sustained as a result of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study, except as required by law.

#### Potential benefits

Participants will not benefit directly from participation in this study. Your participation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new field of study on comparative studies on both Korea and Singapore.

#### Confidentiality

Any information that is obtained in connection with this study and that can be identified with you will remain confidential and will be disclosed only with your permission or as required by law. Confidentiality will be maintained by ensuring that only the student researcher has access to the audio files. Should portions of recording be used in research presentations, they will be converted to transcripts, which will prevent the individual's voices from being heard. Names of participants and of people involved will be given pseudonyms approved by the participants themselves. The audio files will then be erased when this study is completed.

#### Participation and Withdrawal

You can choose whether or not to be in this study. If you volunteer to be in this study, you may withdraw at any time without consequences of any kind or loss of benefits to which you are otherwise entitled. You may also refuse to answer any questions you do not want to answer. There is no penalty if you withdraw from the study and you will not lose any benefits to which you are otherwise entitled.

#### Identification of Investigator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bout this research, please contact me at 000-0000-0000 or [\\*\\*\\*\\*@snu.ac.kr](mailto:****@snu.ac.kr) or my research supervisor, Professor of Korean Studies Erik Mobrand at [\\*\\*\\*\\*@snu.ac.kr](mailto:****@snu.ac.kr).

**Consent Form: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s' and Singaporeans' Youths' Attitudes towards Marriage**

I have read, discussed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and procedures in the study information sheet attached to this consent form. My questions concerning the study have been answered to my satisfaction, and I acknowledge that I am participating in this study of my own free will. I understand that I may refuse to participate or stop participating at any time.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 Yes I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 No, I do not agree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_\_\_\_\_  
Printed Name of Subject

\_\_\_\_\_  
Signature of Subject

\_\_\_\_\_  
Date

\_\_\_\_\_  
Signature of Researcher

\_\_\_\_\_  
Date

## 부록 B

<참가자 정보>

참가자	국 제 나 이	국적	고향	현재 거주 하는 도시 + 구	인 종	종교	학력	현재 직업	본인 월급	근무 기간	현재 연 애 상황	부모 혼인 상태	가족 구성	누가 키 우셨는 지
KF1	20	한국/ 미국	안양시	안양 시	-	무교	고등학교	대학생	-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여동 생 2 명	부모님
KF2	25	한국	김천	서울 시 강 남구	-	무교	학사	개발자 developer	₩2,00 0,000 ~ ₩5, 000,0 00	1년	한 명과 만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오빠	부모님
KF3	30	한국	서울	서울 시 관 악구	-	무교	석사	대학원생	-	-	한 명과 만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여동 생	부모님 + 외할 머니
KF4	22	한국	광주시	서울 시 구 로구	-	불교	고등학교	대학생	-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아빠, 엄마, 언니	부모님
KF5	31	한국/ 미국	미국	성남 시 분 당구	-	기독교	학사	대학원생	-	-	한 명과 만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오빠	부모님, 할머니, 가디언

KF6	3	미국		서울 시 송 파구	-	무교	학사	대학원생	-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언니, 남동 생, 고 양이	부모님
KF7	28	한국	경원도 춘천	서울 시 관 악구	-	무교	학사	대학원생	-	-	한 명과 만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남동 생	부모님
KM1	24	한국	경기도 성남시	경기 도 성 남시	-	무교	고등학교	대학생	-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동생	부모님
KM2	22	한국	서울	서울 시 서 초구	-	기독교	고등학교	대학생	-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남동 생, 여 동생	부모님
KM3	26	한국	경기도 안산시	서울 시 구 로구	-	무교	학사	회사원	₩2,000,000 ~ ₩5,000,000	2년 11개 월	약혼 안 했지만 동거 중 이다	기 혼	아빠, 엄마, 남동 생	부모님
KM4	31	한국	대구	경기 도 고 양시	-	천주교	고등학교	사무직	₩2,000,000 ~ ₩5,000,000	1년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누나	부모님

KM5	26	한국	서울	서울 시 송 파구	-	무교	학사	대학원생	-	-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기 혼	아빠, 엄마, 형, 고 양이 두 마 리	부모님 + 할머 니 (어릴 때)
KM6	29	한국	대구	서울 시 구 로구	-	무교	학사	대학원생	-	-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이 혼	아빠	아빠 + 할머니 (어릴 때)
SF1	19	싱가 포르 영주 권	말레이 시아	싱가 포르	화 교	기독교	고등학교	대학생	-	-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기 혼	아빠, 엄마, 여동 생	부모님
SF2	22	싱가 포르	-	싱가 포르	화 교	무교	고등학교	대학생	-	-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이 혼	엄마, 여동 생, 남 동생	부모님
SF3	24	싱가 포르	-	싱가 포르	말 레이	이슬람	석사	공무원	\$3000 - \$3900	8개월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오빠, 할머 니, 고 양이 세 마 리	부모님

SF4	23	싱가포르	-	싱가포르	인디언	힌두 (Hindu)	학사	-	-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언니 두 명, 남동생, 강아지 한 마리	부모님 + helper
SF5	26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불교	학사	Research Coordinator	\$3000 - \$3900	2.5년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남동생, 여동생	부모님 + 할머니
SF6	27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불교	Polytechnic Diploma	Insurance Claims Officer	\$2000 - \$2999	5년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기혼	아빠, 엄마, 남동생	부모님
SF7	32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기독교	석사	Financial Advisor	\$5000 - \$5999	6년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기혼	아빠, 엄마, 남동생, 햄스터	부모님
SM1	27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무교	대학원생	-	-	-	한 명과 만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형	부모님
SM2	29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기독교	학사	선생님	\$4000 - \$4999	3년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혼	아빠, 엄마, 누나	부모님

SM3	25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무교	학사	엔지니어	\$3000 -\$3999	5 개 월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형	부모님
SM4	24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불교	Polytechnic Diploma	군인	-	-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기 혼	아빠, 엄마, 누나	부모님 + 조부 모님
SM5	21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Way of Former Heaver (Yiguandao)	고등학교	대학생	-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여동 생	부모님
SM6	31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화교	무교	학사	엔지니어	\$6000 -\$6999	6 년	연애를 안 하고 있다	기 혼	아빠, 엄마, 누나 네 명	부모님

## 부록 C

<한국어 인터뷰 질문>

### Part A

#### 결혼

##### 질문:

1.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죠?
2. 결혼할 계획있으세요? 만약 아니라면 왜요?
3. 언제 결혼할 계획인가요? 나이?
4. 결혼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5.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6. 결혼할 수 있는 "적절한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7. 결혼 전에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8. 결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9.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10. 결혼하기 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11. 결혼하면 경력이 위험해질 것 같아요? 왜요?
12. 결혼 비용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당신은요?
13. 결혼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왜요?
14. 결혼비용은 당신과 당신의 미래의 배우자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건가요? 왜요?
15. 결혼하면 독신으로 지내던 삶이 그리울 것 같아요? 왜요?
16.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가족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부모님은요?
17. "결혼하려고 데이트하기"라는 개념을 믿으세요? 왜요?
18. 결혼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19. 당신은 결혼이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인 일이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나요? 왜죠?
20. 당신은 데이트 상대와 결혼 상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왜죠?  
(연애와 결혼은 별개다)
21. 당신은 결혼이 여성의 경제적 안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세요? 왜죠?
22. 결혼하기 전에 충분한 데이트 경험(많은 파트너, 짧은 연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23. 남편 혼자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왜죠?
24.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 전통/관습의 차이가 부부간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요?
26. 일단 결혼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나요? 왜요?

27. 결혼 전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동거 경험이 있습니까? 동거 생활은 어떠세요?
28. 결혼 생활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29. 결혼이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성공적인 결혼이 성공적인 직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1.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32. 당신은 결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33. 당신은 부부가 단지 동거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 Part B

### 출산

#### 질문:

1. 미래에 아이를 가질 계획있나요? 몇 명?
2. 아이를 갖는 것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왜요?
3.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왜요?
4. 아이를 갖는 것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왜요?
5. 아이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어렵나요? 왜요?
6. 미래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나요? 왜요?
7. 결혼에서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8. 당신은 언제 첫 아이를 가질 생각이세요? 왜요?
9.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무엇이 당신을 기대하시나요? 왜요?
10.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이 당신의 삶을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왜요?
11. 아이를 갖는 것이 당신의 경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왜요?
12. 당신은 언제 아이를 가질지는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13.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무엇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14. 당신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15.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계획인가요? 왜요?
16. 당신의 아이가 미래에 태어날 때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조부모님, 육아?
17. 당신은 아이를 갖는 것이 친구를 만나는 것과 같은 여가 활동을 제한한다고 생각하나요?
18. 부모가 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요?
19. 본인은 당신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왜요?

## Part C

### 정부 정책

#### 질문:

1. 한국의 주택 계획에 대해 알고 있나요?
  - a.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나요?
  - b. 당신은 그것이 결혼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 c. 당신은 그것이 미래에 집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2. 정부가 커플들의 결혼을 돕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b.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c.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d. 왜 한국인들이 늦게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a.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b.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개선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c. 당신은 육아휴직(2 주)과 산모휴직(13 주)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d. 아기 보너스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 육아 친화적인 직장은 어떻습니까?
  - f. 당신은 이러한 계획들이 당신이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왜죠?
  - g. 당신은 왜 한국 사람들이 출산을 꺼린다고 생각합니까?

## 개인 정보

1. 성함:
2. 나이:
3. 남/여
4. 국적:
5. 고향/출생지:
6. 현재 거주하는 도시, 구:
7. 연락처:
8. 종교:
9. 식구 (예: 아빠, 언니..):
  
10. 부모 혼인 상태: 결혼, 이혼 등
  
11. 누구 키우셨나요?
  - 부모님 (아버지+어머니)
  - 아버지/어머니
  - 기타: 예: 할머니, 베이비시터
  
12. 현재 직업:
  
13. 근무시간:
  
14. 수입:
  - ₩0 ~ ₩2,000,000
  - ₩2,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10,000,000 이상
  - \$9000 - \$10999
  
15. 교육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학사 졸업
- 석사/박사 졸업

16. 현재 연애 상황

- 연애를 안 하고 있다
- 여러 명을 만나고 있다
- 한 명과 만나고 있다
- 한 명의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
-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지 않고 있다
- 약혼 안 했지만 동거 중이다
- 기타:

**Part A**

**MARRIAGE**

**Questions:**

1. Do you think marriage is important? Why?
2. Do you plan to get married? If no, why?
3. When do you plan to get married? Age?
4. What concerns do you have about marriage?
5. Do you think you are ready for marriage? Why?
6. Do you think there is a “suitable age” before one can get married? Why?
7.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have before marriage? Why?
8. Do you feel that there is a need for one to get married? Why?
9.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advantage of getting married? Why?
10. How much money do you think you need to have before you plan to get married? Why?
11. Do you feel that your career would be put at risk once you get married? Why?
12. Do you think wedding expenses is a reason why one would push back their marriage? Why?  
How about you?
13. What excites you the most about marriage? Why?
14. For your wedding expenses, how would you split the responsibility between you and your future spouse? Why?
15. Do you think you will miss the life you had as a single person once you are married? Why?
16. Do you feel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when selecting a marriage partner? Is it important to your parents?
17. Do you believe in the concept of “date to marry”? Why?
18.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disadvantage of getting married? Why?
19. Do you believe that marriage is a personal affair for the husband and wife and should not have the interference of others? Why?
20. Do you feel that dating partners and marriage partners are different matters? Why?  
(연애와 결혼은 별개다)
21. Do you believe that marriage is a form of economic security for the female? Why?
22. Do you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sufficient dating experience (many partners, short relationships) before getting married? Why?

23. Do you feel that the husband alon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amily? E.g., financially?  
Why?
24. Do you feel that financial stability is valuable for a successful marriage?
25. Do you feel that differences in traditions/customs make it difficult for a married couple to adjust? For instance?
26. Do you feel that you are losing out once you choose to get married? Why?
27. What are your thoughts on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Do you think it is necessary?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cohabitation? How is your society with cohabitation?
28. Do you think married life would be difficult for you to adjust to?
29. Do you believe that marriage helps one to mature?
30. Do you feel that a successful marriage should be more important than a successful career?
31. Do you feel that there are more advantages to being single than to being married? Why?
32. Do you think that marriage makes people happy? Why?
33. Do you think it is better for a couple to be married than to just be cohabitating? Why?

## **Part B**

### **FERTILITY**

#### **Questions:**

1. Do you plan to have children in the future? How many?
2. Do you think having children is an essential part of life? Why?
3. What concerns do you have about having children? Why?
4. Do you think having children will help develop you as a person? Why?
5. Do you find it hard to imagine living a life without children? Why?
6. Do you talk to your friends about having children in the future? Why?
7. Do you think that children are important in one's marriage? Why?
8. When do you intend to have your first child? Why?
9. What excites you about having a child? Why?
10.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you to be able to get pregnant anytime?
11. Do you feel that having children would limit your life now? Why?
12. Do you feel that having children would limit your career? Why?
13. Do you feel that it is important for you to choose when to have children? Why?
14.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have before you feel that you are ready to have children?  
Why?
15. Do you think you are able to work and take care of your children? Why?

16. Do you plan on resigning from your job to take care of your children? Why?
17. What is your plan for your child when he is born in the future? E.g., grandparents, infant care?
18. Do you feel that having children would limit your leisure time activities like meeting your friends?
19. What do you think is the biggest advantage of being a parent? Why?
20. Do you think you are ready to be a parent? Why?

### **Part C**

#### **GOVERNMENT POLICIES**

##### **Questions:**

1. Do you know about Singapore's public housing schemes?
  - a. If yes, could you briefly explain your knowledge about it?
  - b. Do you think it has played a part in your attitudes towards marriage?
  - c. Do you think it is useful in helping you to get a house in the future?
2. Do you feel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enough in helping couples get married?
  - a. If yes, could you explain why?
  - b. If no, what else do you think the government can improve on?
  - c. What do you think about the household proximity grant and grants for BTOs?
  - d. Why do you think Singaporeans prefer to marry late?
3. Do you feel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enough in helping to encourage childbirth?
  - a. If yes, could you explain why?
  - b. If no, what else do you think the government can improve on?
  - c.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aternal leave (2 weeks) and maternal leave (16 weeks) system?
  - d.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aby bonus scheme?
  - e. How about childcare friendly workplaces?
  - f. Do you think these initiatives will encourage you to give birth to more children? Why?
  - g. Why do you think Singaporeans are so reluctant to give birth?

### Personal Particulars

17. Name of participant:
18. Age of participant:
19. Male/Female
20. Country of birth:
21. Hometown (for Koreans):
22. Current Province of Residence (for Koreans):
23. Contact Number:
24. Religion:
25. Family members including pets:
  
26. Are your parents married, separated, divorced, never married?
  
27. Who were you raised by?
  - Parents (both mother and father)
  - Parent (mother/father)
  - Other (specify):
  
28. Current Occupation:
  
29. Duration of working experience
  
30. If working, please estimate your income
  - Below \$1000
  - \$1000-1999
  - \$2000 - \$2999
  - \$3000 - \$3999
  - \$4000 - \$4999
  - \$5000 - \$5999
  - \$6000 - \$6999
  - \$7000 - \$8999
  - \$9000 - \$10999
  - \$11000 - \$14999

- \$15000 and over

31. Highest level of education:

- Never went to School
- Finished Primary School
- Finished Secondary School (N-levels)
- Finished Secondary School (O Levels)
- ITE diploma
- Finished Junior College (A Levels)
- Polytechnic Diploma
- University Degree
- Postgraduate Degree

32. Relationship Status

- Not dating
- Dating more than one person
- Dating one person
- Steady relationship with one person
- Engaged but not living together
- Not engaged but living together
- Others (specify):

## 참고 문헌

- 김성혜, 김초강 (1991).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8(1), 87-97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박미라 & 제남주(2019). "대학생의 결혼관, 자녀관,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예비 부모역할 인식이 결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 316-328.
- 박선향(2019). "남녀대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보건과 복지 21.3, 87-106.
- 박혜인. (2020). 결혼정보회사 듀오, '2020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 발표. Retrieved from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99>
- 성서호. (2020). 한은 "코로나가 올해 혼인·임신 감소에 큰 영향줬을 것".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140200002>
- 송동욱, 이기형 (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한 국언론정보학보, 84, 28-98.
- 우혜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유계숙, 김민정, 서진술 (2019). 미혼 청년층의 성공적 결혼에 대한 태도가 독신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지, 28(5), 477-490
-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39
- 이보희. (2020). 결혼비용 평균 1억5천만원...남녀 7대3 부담이 가장 많아. Retriev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500058&wlog\\_tag3=kakao\\_share](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500058&wlog_tag3=kakao_share)
- 탁현우. "미혼남녀의 결혼지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2 (2020): 223-244.
- 통계청(2016). <한국의 사회 동양>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3/index.board?bmode=download&aSeq=370195&sort=1#:~:text=2014%EB%85%84%20%ED%98%84%EC%9E%AC%20%EB%AF%B8%ED%98%BC%20%EB%82%A8%EC%84%B1,%25\)%EA%B3%BC%20%EB%B9%84%EC%8A%B7%ED%95%9C%20%EC%88%98%EC%A4%80%EC%9D%B4%EB%8B%A4.](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3/index.board?bmode=download&aSeq=370195&sort=1#:~:text=2014%EB%85%84%20%ED%98%84%EC%9E%AC%20%EB%AF%B8%ED%98%BC%20%EB%82%A8%EC%84%B1,%25)%EA%B3%BC%20%EB%B9%84%EC%8A%B7%ED%95%9C%20%EC%88%98%EC%A4%80%EC%9D%B4%EB%8B%A4.)

통계청(2019). <2019년 혼이·이혼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1204&ord=2#:~:text=2019%EB%85%84%20%ED%98%BC%EC%9D%B8%EA%B1%B4%EC%88%98%EB%8A%94,%EB%8C%80%EB%B9%84%200.3%EA%B1%B4%20%EA%B0%90%EC%86%8C%ED%95%A8.](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1204&ord=2#:~:text=2019%EB%85%84%20%ED%98%BC%EC%9D%B8%EA%B1%B4%EC%88%98%EB%8A%94,%EB%8C%80%EB%B9%84%200.3%EA%B1%B4%20%EA%B0%90%EC%86%8C%ED%95%A8.)

통계청(2020).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8265&ord=2](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88265&ord=2)

통계청(2021).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Aassve, A., Meroni, E. & Pronzato, C. Grandparenting and Childbearing in the Extended Family. *Eur J Population* **28**, 499–518 (2012).  
<https://doi.org/10.1007/s10680-012-9273-2>

Allendorf, K., & Pandian, R. (2016). The Decline of Arranged Marriage? Marital Change and Continuity in Ind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35–464. Retrieved May 10, 2021, from <http://www.jstor.org/stable/44015659>

Awang, N., & Wong, P. T. (2019, November 03). The Big Read: As maids become a necessity for many families, festering societal issues could come to the fore. Retrieved from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maids-foreign-domestic-workers-singapore-necessity-families-12059068>

Bahk, E. J. (2021). Parents call for heavy punishment of daycare center staff for abusing disabled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2/251\\_303845.html](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1/02/251_303845.html)

BBC News. (2021). South Korea: Child rapist's release sparks demand for change.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world-asia-55465099>

- Bumpass, L.L., Rindfuss, R.R. & Jamosik, R.B. (1978). Age and marital status at first birth and the pace of subsequent fertility. *Demography* **15**, 75–86. <https://doi.org/10.2307/2060491>
- Chen, Y.-C. C, Li, J.-C. A. (2014). Family Change in East Asia.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the Sociology of Families* (pp. 61–82).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https://doi.org/10.1002/9781118374085.ch4>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n.d. History of CPF. Retrieved from <https://www.cpf.gov.sg/Members/AboutUs/about-us-info/history-of-cpf>
- Chang, Kyung-Sup. 2010. “Ch. 1.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familial basis” In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Pp. 1–13.
- Dahlberg, K. (2006). The essence of essences – the search for meaning structures in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lifeworld phenomena.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Studies on Health and Well-being*, 1(1), 11–19.
- Duncan, M. (2018). The legal, social, and emotional definition of marriage / Melanie L. Duncan.
- Esser, F., & Vliegenthart, R. (2016).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In J. Matthes, R. Potter & C. S. Davis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London: Wiley–Blackwell.
- Fine–Davis, M. (2011). *Attitudes to family formation in Ireland: Findings from the nationwide study*. Retrieved from <http://www.tara.tcd.ie/bitstream/handle/2262/63702/Attitudes%20to%20Family%20Formation%20-%20Findings%20from%20the%20Nationwide%20Study.pdf?sequence=1&isAllowed=y>
- Freedman, M. (1970). *Chinese family and marriage in Singapore*. Johnson Reprint, New York.
- Giddens, A.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Love, Sexuality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Polity Press.
- Gunjan, J. (2019). Significance Of Marriage As Social Institution In Indian English Writings. *Social Values & Society*, 1(1):17–22.
- Hashmi, A. R., & Mok, W. J. (2013).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in Singapore: Evidence from a household survey. *Singapore Economic Review*, 58(4), 1350023.
- Jee, Y., & Lee, G. (2020). Prevalence of sexual experience among Korean

- adolescent: Age-period-cohort analysis. *Epidemiology and Health*, 42, E2020008.
- Jiang, S., & Ngien, A. (2020). The Effects of Instagram Use, Social Comparison, and Self-Esteem on Social Anxiety: A Survey Study in Singapore. *Social Media Society*, 6(2), 205630512091248.
- Jones, G. (2012). [PDF]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in Singapore : The limits of policy: Semantic Scholar. Retrieved from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Late-marriage-and-low-fertility-in-Singapore--the-Jones/0505ddda55ac9f93082a62a93f877220afb0bbd5>
- Jones, G.W., Yanxia, Z. & Zhi, P.C. (2012). Understanding High Levels of Singlehood in Singapor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3(5), 731-750.
- Jones, G. W., & Yeung, W. J. (2014). Marriage in Asia. *Journal of Family Issues*, 35(12), 1567-1583. doi:10.1177/0192513X14538029
- Jung Y. D., & Sung S. Y. (2012). The Public's Declining Trust in Government in Korea. Retrieved from <http://mjps.meiji.jp/articles/files/01-04/01-04.pdf>
- Juszczyk-Frelkiewicz, K. (2017). Marriage standard, love standard or fun standard? The preferred models of sexual activity in South Korea. *SOCIOLOGIA A SPOŁOČNOSŤ / SOCIOLOGY AND SOCIETY*. 2. 2-14. 10.17846/SS.2017.2.2.2-14.
- Kim, E. (2020). (News Focus) S. Koreans feel pinch of rising housing costs amid economic downturn. Retrieved from <https://en.yna.co.kr/view/AEN20201202004000320>
- Kin, C., Yang, R., Desai, P., Mueller, C., & Girod, S. (2018). Female trainees believe that having children will negatively impact their careers: Results of a quantitative survey of trainees at an academic medical center. *BMC Medical Education*, 18 doi: <http://dx.doi.org.libproxy.snu.ac.kr/10.1186/s12909-018-1373-1>
- Larson, J. (1988). The Marriage Quiz: College Students' Beliefs in Selected Myths about Marriage. *Family Relations*, 37(1), 3-11. doi:10.2307/584422
- Lee J. (2021). Moon's Support Hits Record Low Amid South Korean Land Scandal. Retrieved from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3-26/moon-s-support-hits-record-low-amid-south-korean-land-scandal>

-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n.d.. Saving the CPF: Restoring Public Trust in Singapore's Retirement Savings System. Page 2. Retrieved from [https://lkyspp.nus.edu.sg/docs/default-source/case-studies/cpf-case\\_final\\_feb2015.pdf?sfvrsn=eac0960b\\_2](https://lkyspp.nus.edu.sg/docs/default-source/case-studies/cpf-case_final_feb2015.pdf?sfvrsn=eac0960b_2)
- Lee, T., & Willnat, L. (2006). Media Research and Political Communication in Singapore. Retrieved from [https://researchrepository.murdoch.edu.au/id/eprint/10016/1/media\\_research.pdf](https://researchrepository.murdoch.edu.au/id/eprint/10016/1/media_research.pdf)
- Lee, Y. (2007). Adolescents and Parents Attitudes about Marriage in Korea : The Importance of the Frequency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s.
- Lester, D. (1996).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Marriage and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5(3-4), 151-154.
- Lichter, D.T. & Qian, Z. (2008), Serial Cohabitation and the Marital Life Cour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861-878.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8.00532.x>
- Lim, T., Bali, A., & Moo, M. (2019). New digital realities and old public service broadcasting models – the case of public access and participation in Singapore's televisual landscape.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70(1), 100-114. <https://doi.org/10.1177/1329878X17743348>
- Lim, J. Y. & Lee, Y. M. (2019). Exit duration and unemployment determinants for Korean graduates. *J Labour Market Res* 53, 5. <https://doi.org/10.1186/s12651-019-0255-2>
- Luce, A., Cash, M., Hundley, V. *et al.* "Is it realistic?" the portrayal of pregnancy and childbirth in the media. *BMC Pregnancy Childbirth* 16, 40 (2016). <https://doi.org/10.1186/s12884-016-0827-x>
- Maliki, A. E. (2011). Socio-Economic Status and Preferences in Marriage Partner Selection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s in South-South of Nigeria. 4(1-2), 39-49. Retrieved from <https://www.ajol.info/index.php/eic/article/view/72723>.
- Manning, W., Longmore, M., & Giordano, P. (2007). The Changing Institution of Marriage: Adolescents' Expectations to Cohabit to Mar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559 – 575.
- Matsuda, S. (2019). Young Men's Employment and Their Marriage: A Comparison among Japan, South Korea, Singapore, the UK, France, and Sweden.

Comparative Sociology, 2019(2), 204–228.

Ochiai, E.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Vol. 36. No. 2. Pp. 219–245.

Özyigit, M. K. (2017). The Meaning of Marriage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A Phenomenological Study. *Educational Sciences : Theory & Practice*, 17(2), 679–711.

Polkinghorne, D.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 (pp. 41–60). New York: Plenum Press.

Quah, S. R. (1988). *Between Two Worlds: Modern Wives in a Traditional Setting*.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Quah, S. (1990). Gender Roles, Family Roles and Health Behaviour: Pursuing the Hidden Link. *Southeast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18(2), 51–69. Retrieved April 9, 2021, from <http://www.jstor.org/stable/24491671>

Raymo, J. M., Park, H., Xie, Y., & Yeung, W. J. (2015). Marriage and Family in East Asia: Continu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 471–492. <https://doi.org/10.1146/annurev-soc-073014-112428>

Retherford, R. D., Ogawa, N., & Matsukura, R. (2004).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Retrieved from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1728-4457.2001.00065.x>

Rink, L. E. (2012). “Even More Scared”: The Effects of Childbirth Reality Shows on Young Women’s Perceptions of Birth. Retrieved from <https://deepblue.lib.umich.edu/bitstream/handle/2027.42/91860/lrink.pdf?sequence=1>

Saw, S. H. & Wong, A. K., and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Singapore. 1981. *Youths in Singapore: Sexuality, Courtship, and Family Values*. [Singapore]: Published by Singapore University Press for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Singapore.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19). Statistics on Marriage and Divorces. Retrieved from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population/smd2019.pdf>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0). Population Trends. Retrieved from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population/population2020.pdf>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1). Labour Market Release. Retrieved from

[https://stats.mom.gov.sg/iMAS\\_PdfLibrary/mrsd-LMAR-Q1-2021.pdf](https://stats.mom.gov.sg/iMAS_PdfLibrary/mrsd-LMAR-Q1-2021.pdf)

Smith, H. J., Chen, J., & Liu, X.. (2008). Language and rigour in qualitative research: Problems and principles in analyzing data collected in Mandarin.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8(1), 44.

Smock, J. P.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20.

Song J. E., Ahn J. A., Lee S. K., Roh E.H. (2018) Factors related to low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PLoS ONE* 13(3): e019459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4597>

Stevenson, B, & Wolfers, J. (2007). Marriage and Divorce: Changes and their Driving Force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2), 27-52.

Straughan, P. T. (2012). *Delayed marriage and ultra low fertility - The confounding challenges to social stability*. Paper presented at the The Population Conundrum, Roundtable on Singapore's Demographic Challenges, 2012 May 3, Orchard Hotel, Singapore. [https://lkyspp.nus.edu.sg/docs/default-source/ips/conference-proceeding\\_paulin-tay-straughan.pdf](https://lkyspp.nus.edu.sg/docs/default-source/ips/conference-proceeding_paulin-tay-straughan.pdf)

Strijbosch, K. (2015), Single and the City: State Influences on Intimate Relationships of Young, Single, Well-Educated Women in Singapore. *Fam Relat*, 77: 1108-1125. <https://doi.org/10.1111/jomf.12221>

Takeuchi, M., & Tsutsui, J. (2016). Combining Egalitarian Working Lives with Traditional Attitudes: Gender Role Attitudes in Taiwan,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 IJJS*, 25(1), 100-116.

The Korea Herald. (2019). Suicide No. 1 cause of death for S. Korean teens, youths. Retrieved from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501000216>

The Straits Times. (2021). South Korea unemployment rate hits 21-year high with a million jobs lost. Retrieved from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economy/south-korea-unemployment-rate-hits-21-year-high-with-a-million-jobs-lost>

- Thornton, A., Axinn, W. G., & Hill, D. H. (1992). Reciprocal Effects of Religiosity, Cohabitation, and Marriag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3), 628-651.
- To, S. (2013). Understanding Sheng Nu ("Leftover Women"): The Phenomenon of Late Marriage among Chinese Professional Women. *Symbolic Interaction*, 36(1), 1-20.
- Van Manen, M. (2016).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Walnut Creek: Taylor and Francis.
- Vijayan, K. C. (2018). Singapore top Asian nation in rule of law ranking, and 13th globally. Retrieved from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spore-top-asian-nation-in-rule-of-law-ranking-and-13th-globally>
- Wardle, L. D. (n.d.). Children and the future of marriage Regent University Law Review. Retrieved from [https://www.regent.edu/acad/schlaw/student\\_life/studentorgs/lawreview/docs/issues/v17n2/Wardle.pdf](https://www.regent.edu/acad/schlaw/student_life/studentorgs/lawreview/docs/issues/v17n2/Wardle.pdf).
- Waller, M., & McLanahan, S. (2005). "His" and "Her" Marriage Expectation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53-67. Retrieved May 2, 2021, from <http://www.jstor.org/stable/3600136>
- Wasserman, A. (2020). Getting married in 2021? What you should know. Retrieved from <https://www.asiaone.com/lifestyle/getting-married-2021-what-you-should-know>
- World Bank. (2020). GDP per capita (current US\$) - Singapore. Retrieved from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SG>
- World Health Organisation. (2019). Suicide rate estimates, age-standardized. Estimates by country. Retrieved from <https://apps.who.int/gho/data/node.main.MHSUICIDEASDR?lang=en>
- Yu, S., & Shim, K. (2018). Forced drinks after work takes life of new recruit. Retrieved from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18/04/20/socialAffairs/Forced-drinks-after-work-takes-life-of-new-recruit/3047242.html>
- Zong, S. (2015). A Study on Adolescent Suicide Ideation in South Korea.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74, 1949-1956

## Abstract

Studies on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in Korea have usually focused on the attitudes of Koreans and the reasons behind these attitudes. Despite constant governmental efforts in an attempt to solve this problem, Korea has been observing a constant decline in marriage and fertility rates. Therefore, this paper took a different perspective by comparing Korea's situation with Singapore's. Although there have been comparative studies that have been done on this issue, most focused on East Asian countries.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focused comparison of both countries and highlight the influence external factors like economic factors have on young adults' decision for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3 Korean and 13 Singaporean young adult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imilar shift in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birth in both countries. This was a result of different reasons like rising educational attainment, changing societal atmosphere etc. However, despite similar shifts in attitudes towards both marriage and fertili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arge difference in the rate at which Korea's age of marriage was increasing compared to Singapore. With further analysis between both countries, it was found that it was not due to the decrease in desirability of marriage. Rather, there were external economic and societal factors which are affecting these life decisions in Korea. Some external factors include the exorbitant costs needed for marriage and childbirth, the lack of family support and the negative role of media in Korea. This paper hence highlights the importance for the focus on these external factors affecting both marriage and childbirth instead of simply focusing on Koreans' attitudes.